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基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米第一回收穫豫想高發表

朝鮮米價低落未然否?

一

今年朝鮮에는 所謂 稀有의 暴風雨가 襲來하야 農作特히 米作에잇서서 大凶作을 보게되엿다함은 萬人이 熟知하는바이다。今年 全朝鮮의 風水害總損害額은 實에 一億圓以上에 達한다고 認定되거니와 當局에서發表한 全羅南北및 慶尙南北四道의 被害額만도 五千萬圓以上으로되여잇스니 此에 依하야 今年朝鮮農作이 大凶作이라는것은 當局에서도 認定하는것이 事實이다。함에도不拘하고 三日正午 總督府農林局에서 發表한 第一回朝鮮米收穫豫想高는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으로 豊作이엿든 昨年實收高에 比하야 二百五萬七千五百二十四石의 增收일뿐아니라 近年의 大豊作인 昭和五年의 一千九百十八萬六千七十七石에 比하드래도 七十六萬餘石의 大增收를 示하게되엿다。이것이 事實이라면 吾人은 여게서 矛盾을 指摘치 안흘수업다。上述한 兩個事實 即 今年은 凶年이라는事實과 今年은豊年이라는 數字는 兩立할수업는 까닭이다。

二

그러면 이와가튼 矛盾은 어데서 생긴것인가? 드러날것도업시 凶年을 豊作으로 發表하게된 그調査方法에 잇는것이다。即 今年에는 朝鮮米收穫豫想調査에잇서서 從來와 그方法을 달리하야 移動、現在、및生產의 三原則을세우고 生產에잇서서는 耕地에 等級을區分하야 特別히 任命한 調査員이 그等級을 考慮하야 細密히 調査하게한結果 以上과가튼 數字가 나오게된것이다。그러면 過去 十餘年동안 總督府當局이 責任잇게發表한 朝鮮米收穫豫想高및 實收高는 거짓말이엿든가? 또는 方法에 錯誤가잇섯다는말인가? 비록 耕作地에 等級을 區分하여 調査하기는 今年이 처음이라할지라도 從來 調査員도 그等級을 考慮에너어 總括的으로 推理하엿슬것이 事實이다。그리고 今年調査가 正確하다는것은 무엇으로 證明할것인가? 從來調査員으로말하면 年來的經驗과 調査의標準이잇서서 오히려 큰錯誤를 犯하는일이 적을것을 생각할수잇스나 今年새로 任命된 調査員은 經驗이적고 標準點을 새로定하여야 할것이니만치 過誤를犯할率이 도로혀 더만흘것이다。

三

그러면 朝鮮米收穫豫想 調査方法을 一新하게된 必要와原因은 어데잇는가? 이것은 朝鮮自體의必要에서 朝鮮總督府가 率先하야한것이아니라 日本內地의 農民保護를 目的으로 中央政府에서 總督府에 命令하야 始作된것이다。最近數三年來로 議會에서는 朝鮮米生產問題及 朝鮮米實收高問題가 시끄럽게 物議되엿다。即 朝鮮米生產費는 보다더 쌀것이오 朝鮮米實收高는 보다더 만흘터이라는것이 그들의 共通的主張이엿다。그리하야 그生產費에잇서서는 朝鮮總督府當局이 調査한 數字를 否定함이오 아즉 決定的數字가 나타나지 안헛스나 收穫高에잇서서는 中央政府에서 命令한 調査方法에 依하야 인제 그年來的主張과 合致한 數字가 나타나서 全朝鮮사람은 稀有의 大凶作으로 알고잇스며 또事實에잇서서도 그러함에 不拘하고 數字上으로는 未曾有의 大豊作으로 發表되엿다。

四

勿論 이 收穫豫想高發表가 當局의 어떤 惡意가 潛在치아니햇다는것은 從來의 調査方法대로한 數字를 아울러 發表한것으로 보아 알수잇다。그러나 今年이 凶年인 해에 새調査方法에 依한 數字를 發表하야 凶作을 豊作처럼 誤認케하게된것은 時期를 엇지 못한 方策이다。그것은 그러하고 이번 收穫豫想高에 依하면 朝鮮은 從來의 二割餘의 減收요 日本內地는 昭和八年의 豊作에 比할만하다하니 朝鮮의 米價가 暴落될것은 定한 理致다。왜그러냐하면 米價는 日本內地의 需給關係로 決定되는 때문이다。게다가 今番 自治管理法이 施行됨에 따라 日本內地、朝鮮、臺灣三地의 收穫高와 需給의量을 따저보아 그 剩餘를 各自比例로 自治管理케 되는바 朝鮮의 收穫豫想은 압으로 實上은 적은데 自治管理하는 比率은 四三이란 큰數字를 가젓스니 그만치 移出이 못됨으로 米價는 低落하지안흘수업다。

五

要컨대 今年의 朝鮮米價는 日本內地가 豊作이오 朝鮮이 凶作인 點과、自治管理法이 施行되어 가득이나 例年보다 移出比率이 적을터인데 凶作을 豊作으로 發表하야 移出量이 적을것이므로 米價는 從來보다 의 低落을 볼것이다。

日中交涉에對하야 英國、相當히關心

中國人의國家觀念漸次强化 『로이텔』通信의報道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日中兩國의 微妙한 外交關係에鑑하야 深甚한 注意를하고 그進行을 觀測하고잇는데 로이텔通信社는 二日에이르러 英國政府는 兩國間의 交涉에 어느程度까지 積極的으로 進出하여온것을 示唆하야 다음과가티 報道하고잇다

英國이 北中國及 長江一帶에 莫大한 權益을 保有하고잇스므로 英國政府는 日中兩國間의 交涉에 無關心할수 업다 此等事情에 基하야 英國政府는 兩國交涉의 經過에『能動的關心』을 示하고잇다고 미더도 조타는 理由가잇다

南京政府에對한 日本政府의要求에對하야 로이텔通信은 終始九月三十日附의 報道가 廣汎的正鵠을 穿鑿하고잇다고 主張하고 잇는데 다시南京政府가 代案을 提示하엿다고 報道하고 今後交涉에對하야 大體如左히 觀測하고잇다

一、日中兩國間의 交涉에서 中國人사이에 國家觀念이 漸次培養되여온것은 看過할수업다 西南派의 反亂에對하여도 中國將校는 內心反對를 主張하야 將領의意向에 從치안엇다

一、英國政府가 漢口居留民婦女子의撤歸를 考慮하고잇다고하는데 右報道에對하여서는 當局은 何等確認을 與치안헛다

一、倫敦市場에 中國公債가 幾分軟調를 示하고잇는데 黃物이만흔 結果는아니다 다시로이텔通信社는 日本軍이 長江封鎖를 考慮하고잇다는 臆測을 紹介한後 右報道는 當局에서도 事實無根이라 斷定하고 잇다고 述하엿다

英、在中居留民의 保護를考慮

【倫敦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日中兩國關係惡化한때를 考慮하고 中國居留民의 保護에對하야 考

英埃新協定調印 ─ 英埃新協定은 八月二十六日에 英國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調印되엿다 調印直前에 埃及首相파샤氏와 英外相이든氏의 演說이잇섯는데 寫眞은 이든外相 演說하는中이다 前ㅣ불左便은 埃及側代表들이오 右便은 英國側代表들이다

南京 上海 二十一新聞 對日宣言을發表

國府妥協態度를牽制 日本要求가事態惡化식힌다고

【上海三日發同盟】上海南京에 中國新聞二十一社는 今三日 連名으로『全國民及 日本朝野에告함』이란 題目下에 長文의 宣言文을發表하야 危機에 直面한 日中交涉에 重大示唆를 與하는一方 國民政府 妥協態度를 牽制하고 日本朝野에 對하여는 頻發하는 不祥事件은 一部反動分子의 所爲로 全國民의 排日風潮에서오는것이아니라는 旨를 强調하고 日本의 過大要求가 도리혀 事態를 惡化시킨다는 旨의 論調를 揭載하엿다 宣言要旨는 左와如하다

▲全國民에對하야

一、危險한 排外思想은 一掃할것으로 外人復仇로서 事件을 惹起하는것보담 國民은 一致團結하야 政府를 援助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一、輕輕히 國交斷絶을 高唱하야 마침내 城下의盟을 맺힘과如한것은 國을亡케하는것임으로 最後의一步까지 進路를 그릇치지 안키를 希望한다

▲日本朝野에對하야

一、最近兩國關係가 好轉될 希望이보이든 이때에 一個月間 連續하야 不祥事件이 發生한것은 特히 遺憾이다 그러나 此種事件의 發生을가지고 中國人에 普遍된 排日의發現이라고함은 中國人民을 誣하는것이다 이不幸事件을 議會로 日中國交破壞를 企圖하는 反動分子의 所爲인것이 分明하다 日兩國의 國交狀態를 根本的으로 擴收하려하고 根本的態度를 取할 은 中國에對하야 잠을 [illegible]

本은 此際 中國에對하야 寬大한態度를 表示하면 中國國民에對하야 排日思想根絶의 最大有効한 保障을 어들수잇슬것이다

二、日本新聞界는 兩國永遠의利害를 熟慮하고 國交回復을圖할것이다

兩國이 提携하면 共存共榮이되고 相戰하면 兩敗俱傷으로 終了될것이다 吾人은 中國民에對하야 自省을 勸告하는 一方 日本新聞界에 對하야 東亞大局의 安危利害를考慮하라 그리고 全面的衝突이 안나임으로 即時 國交의 根本的調整에 努力하야 永遠의 仇敵이 되지말기를 希望하는바이다

[illegible]하고잇다고 報道되다 [illegible]하야금 上海에 軍艦을集中、居留民保護에 便宜의處置를 講究하고 [illegible] 中國艦隊司令長官으로 [illegible]

湖北省主席布告로 漢口民心極度動搖

日中戰爭不可避、命令一下集合準備하라고 中國人의轉居者多數

【漢口三日發同盟】日本側의 沈默과 蔣介石氏의 對日戰備進行說로 當地中國側의 人心不安이 濃厚한이때 湖北省主席 楊永泰氏는 一日武漢三鎭各機關에『日中戰爭은 不可避의 形勢에 잇스니 各自命令一下十分間以內에 集合할수잇도록 準備하고 또此際旅行을中止하고 轉居屆等을 可及的速히 屆出하라』고 布告하얏다 이때문에 民心이 一層動搖되고 昨日來 日本租界에 接한 粤漢鐵路當局을 爲始하야 日本租界에 居住하는 中國人의 轉居하는者 非常히만코 流言이 流布되며 자못混雜되고잇다

豫備交涉妥協次 高宗武氏川越大使訪問

【南京三日發同盟】外交部는 昨夜에繼續하야 三日早朝부터 張群部長以下 首腦部參集 蔣介石氏의 歸京其他에關하야 協議를하고 蔣介石氏의 歸京以前에다시 軍大豫備交涉을 行하기로 決定、亞洲司長 高宗武氏는 午前十一時 總領事館에 川越大使를 訪問하고 中國側 態度에對하야 거듭說明諒解를 求하고 蔣氏의最後的決意를 秘密히傳達하야 豫備交涉의 日程 其他에對하야 協議가잇섯다한다

國府의猛省을 川越大使要望

【南京三日發同盟】外交部亞洲司長高宗武氏는 三日午前十一時十五分 大使官邸에 川越大使를 訪問하고 蔣介石氏의 指示에基하야『中國側으로서는 極力 日中關係의 現狀打開에 努力할 方針으로 速히 善處할 決心이니 日本側에서도 此際特히 寬容冷靜한態度로 交涉의 圓滿解決에當하라』는 旨를 懇請하야 日本側의 諒解를 求하는同時에 國民政府의態度에關하야 여러가지로 說明하엿다 이에對하야 川越大使는 既定方針에則하야 日本側의毅然한態度를 거듭言明하고 萬若 中國이 眞正으로 誠意가잇다고하면 速히 具體的解決辦法을 決定하야 此를實行할 決意를表示하라고 國民政府의 猛省을 促하고 今後의 交涉方法 具體的問題에對하여는 須磨 高宗武間에서 豫備的折衝을 行하기로하고 正午會見을 終了하엿다 高宗武氏는 다시 總領事官邸에 須磨總領事를 訪問하고 午餐을 함게하면서 日中交涉의 具體的問題에對하야 豫備的會談을 行하엿다

日蘇關係에對한 蘇聯政府의言明

【莫斯科二日發同盟】蘇聯政府는 二日午後 日蘇兩國關係에對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一、漁業條約改訂問題는 카스톨스키 極東部長과 酒匂代理大使와의 交涉이 進捗되여 新條約은 近近調印되게되엿다

二、漁業問題解決結果 滿蘇兩國間의 國境劃定에 對하야 意見이合致되여 日蘇兩國間의關係는 逐次調整될것이다

外蒙代表一行 滿洲里着

三日부터滿蒙會議開催

【滿洲里二日發同盟】外蒙主席代表삼보ㅡ氏를 비롯하야 노ㅡ롭스루·롭트오루네諸氏는 二日午後七時 三輛組立의 臨時列車로 滿洲里到着、外蒙代表一行은 스마ㅡ트한洋服에 오ㅡ바服裝으로 列車로부터 좁에나려서 出迎한 滿洲國代表、蘇聯領事等과 굿든握手

首相、北海道에서 寺內陸相과協議

對中外交의重大化로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對中外交關係 重大化로 大演習陪觀을 延期하고잇섯는데 그後現地情勢는 蔣介石氏의 南京歸來와함께 局面展開의 豫定이서고 日中國交의 根本的調整을 이機會에 實現할야하는 日本政府의 根本對策도 外務陸海軍 首腦部會議로 確定되엿다 桑島東亞局長은 外相代理로써 重要訓令을 携帶하고 南京에 出發하기로 되엿는데 首相은 問題의重要性에鑑하야 三日午後七時 上野驛發 北海道에向하야 五日大演習最後를 裝飾할 拂曉戰을 陪觀 札幌北大의 大本營에伺候、天皇陛下께 御拜謁하야 御下問을 밧고 今回 日中問題發生以來의 經過及 日本政府의 根本方針等 日中關係事項을 中心으로 一般政務를 奏上하기로되엿다 一方寺內陸相은 日中關係가 重大化하기前에 渡道한 關係上 廣田首相은 上奏가終了한後 寺內陸相과會見 다시日中交涉의經緯를 說明하기로 되엿다 이機會에 廣田首相은 陸相이 東京出發前 永野海相과가티 正式提案한 行政機構改革問題에 關하야 爲先陸相의 眞意를 打診한후에 首相도 同意할것으로 解釋한다 兩相會見은 機構問題가 表面化한以來 最初이것만큼 그進行은 매우注目되다

三國貨幣協定에 日本은靜觀態度

【東京電話同盟】佛國政府는 去二十五日附覺書로 法貨切下에關한 英米佛三國貨幣協定에 對하야 日本政府의協力을 希望하여왓슴으로 外務省은 即時 이를 大藏省에 移牒하야 對策을 協議中이든바

一、圓貨는 磅과結附되여잇는바 磅을通하야 實質的으로서 三國貨幣協定에 參加한것과 同樣임으로 現在의情勢에잇서 敢히 右協定에 參加할必要는업다

一、他方法貨의切下率에對하여는 目下 佛國上院에서 審議를繼續하고잇는바 果然어나程度의 切下를 行할는지 明白치못함으로 形勢를觀察할必要가잇다는데 意見一致되여 外務當局은 當分間 靜觀的態度를 取하기로 決定하고 三日 右의主旨를 佐藤駐佛大使에게 訓令하엿다

會課의內務局 移管急速히實現

社會事業强化擴大의 緊要性에 鑑하야 學務局社會課를 內務局에 移管하는것은 大野政務總監下에서 關係上 爲先調査協議한후에 審議室에聯附、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에 着手하기로되엿는데 右改正은 可及的速히 實現할方針으로 現在社會課가 掌理하고잇는 庶務、敎化、體育、古蹟、保護、福利、各係中 保護、福利兩係와 새로 庶務係를加하야 或은 勞働方面의事務를 管轄하는 一係를 新設하야 內務局에 移管하야 社會課로하고 남어지 庶務、宗敎、敎化、體育、古蹟各係를 學務局에 殘存시켜 社會敎育課를 新設할模樣이다

右結果 社會敎育課長의 椅子가 새로생김으로 近近農林局內의 農村振興、農務、米穀三課改置에伴한 分掌規程改正과 同時에 新課長을任命할意嚮인데 現社會課長金大羽氏가 그대로남어잇고 社會敎育課長에는 新學務課長이 兼任 或은 學務局內에 새로增員의 事務官이 任命되지안흘가推測된다

西班牙總統으로 프랑코將軍就任

歐洲文明을赤化로부터救濟한다고 政綱과宣言도發表

【부르고스二日發同盟】西班牙叛軍總司令프랑코將軍은 一日夜國防委員會의 推薦에依하야 西班牙國總統에 就任하야 國防委員會委員長카바네리아스將軍의 引導로 就任宣誓를 擧行하얏다 就任에當하야 프랑코將軍은

余는 西班牙國家의統一을 保持하고 西班牙國民의 名譽와幸福을 擁護할것으로 誓約한다

는 旨를 述하고 다음革命政府의 政綱에對하야 左와如히宣言하얏다

國民革命軍은 歐洲의文明을 赤化의손에서 救濟코저 西班牙國民의 總意에基하야 蹶起하얏다 革命軍은 느저도 三週間內에 首都마드리드府를 占據할터인데 首都陷落後 新政府는 直時極力實現코저 한다 政府는 國民의 福祉를目標로 總體主義에 基하야 權威國家를 建設할方針인데 新國家에잇서서는 革命軍幹部가 重要한地位를 占할것이다 新政府는 또一般大衆의 宗敎的安全을保障하고·카톨릭敎와 提携할것을 誓約한다 外交上에 잇서서는 新政府는 西班牙國唯一의 正常政權으로서 各國에 承認을要求할것이다 外國駐在使臣의缺員은 直時補充하고 國際聯盟에 對하야도 새로 代表를任命하겟다 新政府는 一切의國家및人士와 協調할것을 希望하고 特히 同文同種의 라텐아메리카諸國에는 緊密한精神的物質的關係를 確立할方針인데 共產主義共和國과는 一切接觸을 拒否할터이다 프랑코將軍은 總統府를 부르고스州議會內에두고 國防委員會는 依然부르고스師團司令部에 定할豫定이라한다

民政黨現前代議士會

【東京電話同盟】民政黨東京支部에서는 三日午後二時 現前代議士會를開하고 電力統制問題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左記協議를決定하엿다

▲決議

吾人은 電力問題에 關하야 民有國營案을 支持하고 其實現을 期함

橫濱鎭海兩航空隊 司令以下幹部任命

【東京電話同盟】海軍新航空基地 橫濱、鎭海의 兩航空隊는 一日開隊하엿는데 司令以下幹部는 一日如左히任命되엿다

▲橫濱海軍航空隊

橫須賀鎭守府出仕 海軍大佐 加藤向雄 補橫濱海軍航空隊司令

同 海軍中佐 伊澤石養 補同飛行長

▲鎭海海軍航空隊

鎭海要港部附 海軍中佐 市丸利之助 補鎭海海軍航空隊司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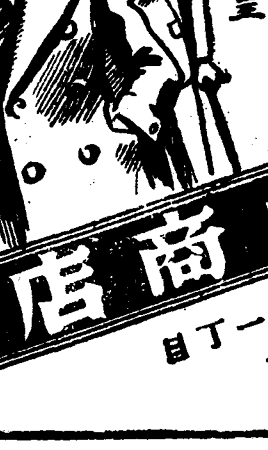
佐世保海軍航空隊飛行長 海軍少佐 內堀與四郞 補同飛行長

電力國營에對하야 各方面反對猛烈

政府最後的決定을延長식히려는策動擡頭 調査機關設置코審議?

【東京電話同盟】電力國營問題에對하야는 이미特別大演習終了後 前田鐵相 小川商相의 歸京을기달리어 繼續하야 馬場、前田、小川三相會議를열고 다시必要에應하야 陸海軍兩相의 意見을徵하야 三相會議로서 最後的決論에到達코자하고잇는데 最近電力國營問題에對한 政府의最後的態度決定을 될수잇는限 延長시킬라는策動이 政界財界一部에 擡頭하여온것은 注目되며 今後그進行에 重大影響이미칠것이라고 注目되다 即電力國營에關한 遞信省案인 民有國營에對하야서는 閣內인 二、三閣僚사이에도 反對意見을가진者잇고 貴族院及 政民兩黨內에도 相當히 反對論이잇서 複雜微妙한空氣는 政界財界經濟界에 反映하야 벌리기프反對運動으로 現出되여잇다 一方遞信省原案은 不充分이라하야 再檢討의必要가잇다고 主張하고 政府의電力國策에對하야 最後的態度決定을 될수잇는대로 延期시키라는運動이 이러나고잇는 이때 二日民政黨首腦部의 電力問題에關한 政務調査會에서 纘母木遞相이 電力國營實施는 財界 經濟界의 影響을考慮하야 昭和十三年度로부터 實施할생각이다 고言明하엿는데 더욱 反對運動을 偏動하는結果가되여 日本經濟機構에 重大한影響을 與할것이므로 愼重히 調査硏究할것이며 早急한決定을 避하야 愼重한態度로써 臨할것이다 此主張에基하야 權威잇는一大調査機關을 設置하야 充分審議할거듭하야 輿論의動向을 打診할機構인데 本問題에對한 政府의態度와 今後 그進行은 極히 重視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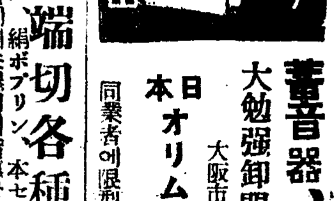
シレネギター
最良ノ品質ト最低ノ價格!!
(營業者に限り御案內進呈)
ナカネオルガン・軍樂ラッパ NMI 音樂器・ハーモニカ 製造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話浪速五一二三番



洋服 オーバー 背廣
商報進呈
株式會社 圓山商店
大阪市東區島町一丁目
振替大阪五七四二九
電話東三五〇四

各種作業服 製造卸問屋
コール天ズボン
靑年團服
乘馬ズボン
半短袴
(カタログ呈)
大阪市東區東阪町
橫田實商店
電話東四六四九番
振替大阪一〇五六五八

고무活字 고무活字
當場에 고무印名刺을組版하야 即賣可能
貴行多大 到處에서 大好評
資本少하고 利益多大 其日부터 容易히장사가되다
(商報進呈)
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鍛冶屋町六八
電話南二〇九番・振替大阪五九一



オリムピア 蓄音器
蓄音器、蓄針、附屬品
大勉强卸問屋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丁目六
日本オリムピア蓄音器商會
電話三一二九四番
同業者에限하야 型錄進呈(郵券二錢要)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絹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 懇切히 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商品第一三號團
(商報進呈) 見本은要五十錢(切手)
庄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番 振替大阪二三八三三番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藥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新興番椒粉 新がらし
冷소면・冷우동 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밀국수・우동 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釜山 山西商店 阿部本店
京城 辻本商店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江口商店
新義州 山七商會 中山商店
元山 重枝商店 小野本店
咸興 西村商店
鎭南浦 權元商店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 からし コショー 製造本舖

藝術의 가을을 裝飾할 點點珠玉의 名作들

總出品一千四百點中 入選이 四百三四點

豫想以上으로 最上의 收穫

三日午後에 各部審査完了

전조선 남녀중등학생계에 큰충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미술애호가들의 이목을 총집중하고잇는 본사주최 제일회 학생미술전람회는 이제야 심사도 끗나고 모든 준비를마추어 드디여 예정대로 오일부터 그동회를운막을 열게되엿다 출품부와 초등부및심사원들의 심사할때에 새로나누기로 된 사범부(師範部)세부를 한하야 출품된 작품점수는 모다일천사점으로 그중에서 엄격한심사를 통과입선된작품은 사범부회화(繪畵)서른점、중등부회화일백두점、초등부회화일백여든다섯점、중등부조각(彫刻)세점、중등부자수(刺繡)및공예(工藝)예순한점、초등부 수공(手工)이 쉬흔세점 하야 모다 사백서른네점이다

회화 조각 자수및공예 수공을통하야 그야말로 엄선에엄선을거듭한결과 입선된작품은 모다 상당한수준이상으로 뛰여나는걸작뿐으로 이 전람회야말로 바야흐로 지터가는 자연의가을과 박자를마추어예술의 가을을장식하고도 남을것으로 조선중 초등생들의 예술수준을 한거름 전진식힐것으로믿는다

一般公開는 明五日午後부터 本社大講堂에서

본사주최제일회학생미술전람회는 드디여 오일오후한시부터일반에게공개키로되엿는데 장내를 정리키위하야 장내정리비(場內整理費)로서 한사람아페 학생은 오전 일반은 十전식을밧되 선생인솔한학생단체에게는 한사람에삼전식을 밧기로되엿다

審査後의 所感

『潑剌한 氣風이 나타낫스면……驚異的進步에 感嘆』

審査員 高羲東氏談

량(量)으로보아 그가리 만흔작품이 모혓다는것은 사계에경진하는 화도의 열의와 귀속에서 노력의신념의결과라고생각합니다

질(質)로보아서는 오직한말슴으로 「경이적(驚異的)진보」라고 할수밧게업습니다 대체로보아 중등정도작품에는 우열(優劣)의차가 심하나 초등학교작품은 일반으로 가튼수준에잇스며 유망한작품도 만흔것가탓습니다 다만 다소유감으로생각되는것은 중초등학교학생의 작품으로서 좀더발랄한기풍이 나타낫스면합니다 로련한 대가들의작품을 방불케하는점등이 이것이 경진도상에잇는 학생의작품으로서는 별로반갑지못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의하날과공긔는 명랑그것입니다 좀더심각히 조선이라는것을 인식한 명랑한색채를쓸것과 진취성을 엿볼수잇는 즉 소년시대의 긔풍이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고희동씨)

『洋畫偏重은 不可 東洋畫에 注力하라』

審査員 崔禹錫氏談

귀사주최의 이번전람회는 조선서 처음되는 획기적장거이니만치 심사원의 한사람인 본인은 물론 약진조선의 미술계를 위하야 그윽히 기뻐하는바이다 그러나 동양화가인 나로서 엄마쯤 유감으로 생각하는것은 첫째로 이번출품중 전수 전여점중에서 동양화의 점수가 극히 적엇다는것과 둘째로는 그나마성적이 그다지 조치 못햇다는것이다。그원인은 물론 각중소학교에서 소위도화(圖畫)라하야 양화과(洋畫科)에만 치중하고 동양사람의 전통적예술인 동양화를한각시키는 때문일것이다 아프로는 각학교당국에서 양화에만 기우러지지말고 좀더 동양화에도 주력해서 가르처주엇스면 기뻐할까합니다。

어쨋든 조선의 미술계는아프로 크대되는바가 크다고밋는동시 이번 귀사주최의 전람회가 큰 수확을 보인데 대해서 만만 치하하는바이다 (사진은 최우석씨)

"빗갈의 選擇과 調和에 힘써라"

審査員 金貴仁氏談

거진이백점이나되는 자수응모작품중에서 특선녀점 우선여섯점을 뽑은것입니다 아주 놀랍게 뛰여낫다고해서 특선이라는것보담 아프로라도 저보담더잘노아서 특선이되겟다는 학생이만히 나오도록 생각하고 뽑은감이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녀성이 남에비겨서 자수에뛰여낫다고하지만 이번에실제로 여러작품을보고 그것을한층더 늣겻습니다 한작품의 도안과 선택한빗갈과 그빗갈의 조화과수놋는솜씨와 노력이 모다 구비할수가잇겟습니까만 이모든점을 다소홀이해서는 아니되는것이 완연히 나타납니다 특히아프로는 빗갈의선택과 그조화를 고상하게하도록 힘써야될줄로 늣겻습니다 (사진은 김귀인씨)

六塵緣影을 解脫 色空一如·法悅境

實想의 가을篇

▼…살찌는가을 굶읍는 가을 거두는 가을이 모다 조흔 가을이겟지만 생각하는가을만큼 그욕한가을이 업슬것이다。옛사람을 생각하고 먼뎃님을 생각하고 자그립든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려안(麗眼)을통하야 내다보는 구원(久遠)의가을! 얼마나 맑고 끼끗한가을이랴。그러나 살겟다고 허덕이는 도회사람들이라서니 그들의 가을이란 거리를달리는 가을이요 안자서 생각하는 그것이 못된다。그들은 끝목에서 풍겨오는 군밤냄새에서나 날근 양복안으로 숨여드는 서늘한바람에서나겨우 밟부고 짧은 가을을 엿보고지나갈따름이다 그러니 그것이 속된 가을일수밧게……

◇……◇

어듸 서울장안에는 생각하는 가을 명상하는 가을이업슬가? 이를 차자서 이리 저리 생각하다 긔자는 안국정(安國町)별궁 뒷골목으로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을 차저갓다。큰대문을 넘어서니 중앙선원(中央禪院)이란 법당이 높직하게 안자잇고 그압뜰에는수양버들이 한적하게 느리저잇다。법당엘 올라가니 흥지한장의 한서를 한장안에도 달려 한장사이에두고 여긔는 병유청지이다。붉은가사를 걸친 스님들과 몃사람의 남녀신도들이범을밧아 마조보고 단정하게 안자잇다。깜박도 안는쓰는듯한 그들의 눈은사색과명상의줄을 다 고벽을 뚤너구만리 허공으로 내달아서 열반(涅槃)의 세계에다를듯말듯……각귀 화두(話頭)란한 「레ー마」를 머리에 넛코 백팔번뇌를 물리치면서 이 맘머리를 뚜릅라는그들。사방은 죽은듯이 고요하다 나도업고 남도업고 다만끗업는공간에끗업는시간이 흐르고잇다。글자그대로의적멸(寂滅)의 세계이다……

◇……◇

예시간을 지낫는지 헤아릴바이조차업시 얼마나 나중에야 딱딱하는 죽비(竹篦)소래와함께 모다들자리를 이러선다 아마한차례의 참선(參禪)이 끗난모양이다 긔자는그중 적음선사(寂音禪師)와 마조안자문답을시작햇다。

「선(禪)이란 무엇이오?」

「참된 나(眞自我)를 몰으로써 깨치는것이다」

「참되나란 무엇이오?」

「사람은 륙진연영(六塵緣影)으로되여잇다 눈과귀와 코와혀와·몸과 뜻이 여섯가지 띠끌이요 사람의몸과 마음은모다 띄끌과가튼 헛개비이다。이 헛개비를 죽여야한다 모든 환영(幻影)을 죽이면 그때에는 헛개비아닌것은 멸하지 안코 남을것이다 이것이 곳 참된 자아이다」

「그진자아를 깨친다면?」

「그진오(眞吾)에는 모양이업고 생멸이 업고 동정이업고 색공(色空)이 업슬지며 태연자약하고 스스로서게되고 유혹되지안호며 그런한분이 세상에를 나서면 모든사업에 묘용(妙用)이 나타날것이다 이것을 완성한분을 대각(大覺)이라고하니 곳 이가 부처이다」

「부처? 산사람도 부처!」

「암그러타 흔히 죽어서 부처가되여 극락에를 간다고 하지만 따로히 극락세계에 부처가잇는것이 아니라 그대각자가 곳 이른바 부처이다」

「선과 일반불교는 어떠케다르오?」

「옹、선(禪)을 설명한다면 그 하리가 교(敎)가되고 교를실천한다면 그것이 곳 선이다」

한마듸한마듸던지는 선사의말은 가볍게나오면서도 납덩이 가튼 무게로 전신을눌리는듯하다。명상하는가을 철학(哲學)하는 가을은 오로지 그들의독점만가탓다。

日曜講話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
主께드리세 李守鉉氏
午後八時
主여어지할고 李守鉉氏
◇中央基督敎靑年會 午後三時
福音戰線에異常이잇다 金禹鉉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永遠한生命 沈明燮氏
午後七時半
未定 金熹澤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天國觀 朴淵瑞氏
午後七時半
크리스도人의本分 李雲龍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교회와선교사업 아편설라氏
午後七時半
未定 갈호고氏
◇曹溪寺 午前十一時
不二의法門 朴漢德氏

賭博團事件求刑

도박개장 동방조인상습도박사건 피고장환(張煥)등열네명에관한공판은 이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김(金)판사심리 지전(池田)검사관여미테열렷다 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오후두시이십분에 잠간휴정하엿다가 세시부터 속행하야 밤여덜시반까지사실심리를 전부마추다음검사로부터 다음과가튼 징역및벌금구형이잇섯다 그리고 언도는 오는 륙일에 하기로되엿다

▲張煥徵役一年 ▲金龍煥同十月 ▲金廣鎬 ▲梁正煥同八月 ▲李建虎 ▲康泰俊 ▲鄭斗永 ▲李範烈 ▲沈聖求 ▲金東周同六月 ▲李命福罰金八百圓 ▲三宅孫大郞同百五十圓 ▲金榮培同百圓 ▲金奉斗同五十圓

西海化한 棧橋!

西海鹿島丸沈沒事件續報

遭難者家族들의 乘客名簿督促과 非難에 會社側態度는 오직 默默할뿐

【仁川에서特派員李鍾模電話】 인천에잇는 친척들이 조난자의 인천긔선회사에는조히 몰려드러승객명부(乘客名簿)가 도착되엿는가고 독촉하여뭇고 모다들 실신한 사람들가티 표정으로헤매고잇스며 녀자들은 눈물을흘리며 울고도잇서서 인천긔선회사압 잔교는 눈물겨운 비극의 장면만 나타내고 잇다 원망스운 험한풍랑은 지식될줄도 몰르고그냥 성내여노피소삿다 업드렷다 하며잇다 인천긔선회사에서는 장차만흔유족들에게어떠한 위자(慰藉)의 방법을강구하게될는지 아직아모 결정도업시 우선널(棺)과 장사치를준비만 하고잇다 승객명부는전화가 잘 듯기지 안흠으로 인편으로 삼일저녁에 가저오게되다하는데 일반유족들은 전보로써 곳알도록하지안코 긔선회사측에서는 전보는 여러가지로 까다롭다하야 인편으로 천천히가지고 오게하는 완만한처치에 대하야 모다불평을 부르짓고잇다

회사에 몰려온 조란자 가족들 ×표가 구사일생한 임경남군

哀愁에잠긴浦口

—數百遺族들의呼哭聲만漲天—

身元判明된溺死者卅一名

【瑞山支局電話】록도환의조난으로 서산군성연면(聖淵面)의 인천긔선회사를 비롯하야 선창하자동차부에는 아버지어머니를부르는 아들딸 아들딸을부르는아버지어머니 수천명의 군중이몰려들어 울부짓는소리 땅을치는통곡이 흔들고잇서 그참혹한정경은 바로볼수업는형편이다 전부죽엇다고 추측되는 륙십여명중에 성연포에서 배에 선객명부에 기재된승객으로 익사로인정된 씨명은 다음과갓고 나머지는 중간기항처(寄港處)에서 배를탄사람으로 씨명조차알수업다

瑞山郡泰安面東門里 李丙來(三一)
同 松岩里 韓雲澤(二二)
同 貞美面壽堂里 鄭貴鉉(三一)
同 山城里 李光薰(三七)
同 同 李香淳(三五)
同 聖淵面葛峴里 李仁圭(三八)
同 同 同人의子(一)
同 鳴川里 李圭哲(三一)
同 同 李敎元(二七)
同 音岩面栗木里 韓氏(女)(二三)
同 富山里 洪正一(二〇)
同 地谷面山城里 金哲鎬(二六)
同 高北面新井里 李聖稷(二五)
同 海美面邑內里 金性元(三五)
同 雲岩里 咸洛吉(三一)
同 面 同 里 金思俊(三五)
同 瑞山面邑內里 宋炳玉(二一)
同 同面德之川里 金大鉉(二六)
同 同 同 金禹鉉(二一)
同 同 李龍俊(三一)
同 仁旨面南中里 朴氏女(四六)
同 浮石面江秀里 金氏(四〇)
同 同 高氏(二三)
同 同後里 朴殷榮(三五)
仁川府松峴里 洪哲熙(二〇)
同 外里 朴光淳(三一)
同 同 (妻)
洪城郡廣川面湘井里 方孝祥(二五)
同 同 方圭石(二五)
同 結城面金谷里 李致明(三六)
同 同 李永烈(三一)

生死未判者

그리고 전기삼십삼명외에 록도환(鹿島丸)에탓는지 안탓는지는몰라도 인천으로향하야 출발한사람으로 생사미판인사람은 다음과갓다

瑞山郡仁旨面比萬里 李三同(二二)
同 浮石面月溪里 崔喜植(三五)
同 上 崔萬鎬妻井氏(四〇)
同 泰安邑內 金聖漢(二八)
同 上 金炳俊(二五)
同 上 崔漢國(二五)
同 瑞山面陽川里 柳東俊(二一)
同 八峰面黑石里 金容周(三五)
同 遠北面毛村里 崔光東(三三)
同 同 蘇谷里 柳基東( )

이제생각하면 ·저승에갓다온듯

慘變當時의 記憶을더듬는 生還者任慶南의九死一生談

이일밤 인천팔미도(八尾島)바다에서 침몰된 록도환(鹿島丸)승객 륙십사명중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여나온 승객네명중 세명은 병원에입원하여 치료중이고 서산사람으로 인천으로 래왕하면서 장사를하는 임경남(任慶南)(三一)군은 삼일오후네시반에 인천긔선회사(仁川汽船會社)압잔교에 나와서 참변을당한 다른 유족들과함께 팔미도에서 올소식을기다리고잇섯는데 마츰긔자는 그를 군중가운데서 차저내여 조난당시의 광경을 무른즉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우리가 탄 배가 륙도(陸島)부근에 왓슬지음에 별안간에 풍랑이 심하여지면서 배가이리저리 흔들려서 그배안에탓든 사람륙십여명은 모다 정신을 일코 어찌할줄을 몰르며 사람살리라고 고함들을 질르게되엿습니다 그런데 마츰내 팔미도부근에 와서는 산덤이가튼 험한풍랑에 부다치여 키가 부러지는 동시에 배안에 물이 차드러오면서 한쪽으로 기우러지게됩디다 그래서 모다 서로 뛰여나오려하엿스나 범서배는 물에잠기게되고 구조되우리는 방금가운데로 드러가는배의 제일노픈곳으로 올라다니면서 울며 부르지지고잇섯는데 마침을 이한개 물가운데에 뜹디다 그것을 꼭붓잡고 정신을 일흔채로 끄을려올라갓는데 나종에 정신을 차리고보니 바로 뒤에 따라오든 래산환(萊山丸)이엿습니다 참으로 이제생각하면 저승에 갓다가 온것이나 다름업는듯합니다 그배에 탓든사람은 대부분이 서산사람이고 인천사람도 멧명잇섯습니다…운운

船員二名 雲興島漂着

삼일오후다섯시쯤에 동운환(通運丸)이 령흥도(靈興島)부근에표착한 록도환(鹿島丸)의 수부(水夫)차성완(車成完)(二九)과 뽀ー이 윤태식(尹泰植)(一五)두명을 구조하엿다한다

◇訂正‖本紙昭和十一年八月十六日附 마라손王 孫南兩君祝賀廣告에 朝鮮體育會理事 金圭冕이가 朝鮮體育協會理事로 誤植되엿삽기 玆에訂正함

籠、蹴四選手 今日歸京

孫南君七日神戶着

伯林올림픽에서 活躍한 籠球代表 廉殷鉉、李性求、張利鎭三選手와 蹴球代表 金容植君은 올림픽觀察을 兼하야 우리選手들을 聲援하려가든 鄭商熙氏와함께 旣報한바와가티 今四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着『노조미』로 歸京할터이라하며 一行中의 李奎煥君은 東京에 들럿다가 數日後에 도라올豫定이라한다 그리고 孫基禎、南昇龍兩君은 方今 伊太利船『콘테롯소』號에乘船하야 凱旋途上에잇는데 上海에서 三日에乘換하려든 秩父丸에는

陸上戰績

…에 밋지못하야 不得已 다음배인 오프ー르사ー號에 乘船하야 七日午後四時 神戶에 到着할터로 八日朝東京에 들럿다가 鄕里京城에는 十一、二日頃에 凱旋할豫定이라한다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 陸上競技大會는 昨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昨報以後의戰績은 다음과가타

【萬米決勝】 1柳長春(養正)三三四分二〇秒四 2金蘇鎭(二高)三三五分四四秒 3許尙淳(京城)
【低障碍決勝】 1金鍾元(延專)二二秒七
【障碍走決勝】 1孔德俱(樂部)二二分九秒四 金裕決 金仁植 金鍾元
【棒高跳決勝】 1許雄俊(開城)三米五五 2蘇鎭南(二高)三米五〇(同大會新記錄) 3金東日(開城)三米一〇
【投槍決勝】 1李事瑱(京城)五〇米一〇(本大會新記錄) 2崔晨鎭(仁川)四二米四五 3姜正善(徽文)四一米九〇
【投圓盤決勝】 1朴瑢集(普專)三六米四八 2張聖壽(養正)三四米九四 3姜永善(二高)二八米四〇
【投鐵槌決勝】 1安榮植(商專)三八米一八(本大會新記錄)
【走幅跳決勝】 1張聖壽(養正)一米六〇 2朱孝順(徽新)一米五五
【三段跳決勝】 1金應鎬(延專)一三米四四 2金時璜(京城)一三米二二(以上本大會新記錄) 3金淵洙(延專)一二米七二
【走幅跳決勝】 1韓喆鎬(孔德俱)六米四二 2金應鎬(延專)六米三六(本大會新記錄) 3金淵洙(延專)六米

普成優勝

延專主催의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第二日은 三日午後二時부터 延專『코ー트』에서 行한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斯界의常勝軍普成高普가 優勝하엿다

決勝戰

【普成】勝【信聖】
【第一라운드】
×金在應 金那喜 1…4 崔鎭瀅 朴貞寶○
○李昌受 宋在鳳 4…1 張錫元 張仁煥×
○李增泰 黃東坤 4…1 朴春福 崔禮殷×
【第二라운드】
○李昌受 宋在鳳 4…0 崔鎭瀅 朴貞寶×

實業庭球終幕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의 秋期리ー그最終日은 三日午後二時부터 朝銀及殖銀兩『코ー트』에서 열린바 全勝의總督府軍이 遞信에게一敗하야 六勝一敗의 總戰績으로 優勝하엿스며 以下順位는 다음과가타

▲優勝‖總督府 六勝一敗
▲二位‖鐵道局 五勝二敗
▲三位‖殖銀、遞信、府廳 以上四勝三敗
▲四位‖專賣 三勝四敗
▲五位‖商銀 二勝五敗
▲六位‖朝銀 零勝七敗

京電對球優勝

京城實業野球秋期리ー그首位爭奪戰의 京電對府廳戰은 三日午後二時부터 京城球場에서 府廳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七A對三으로 京電軍이五戰四勝一敗의戰績으로 優勝하엿다

府廳 〇〇〇一〇〇〇〇二 —3
京電 二〇〇〇〇〇〇一〇A —7A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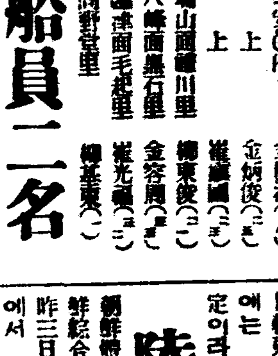
▲女子올림픽‖朝新主催 第十四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 ◇陸上競技 午前八時 ◇籠球 午前八時 ◇排球 午前八時 (以上全部京城運動場) ◇卓球 午前九時(東大門小學校)
▲野球‖遞信對京電 午後三時◇府廳各課對抗軟式野球 午前九時 ◇府會議員對府廳食堂軟式野球 午前十時半 京城球場
▲庭球‖府內女子中等學校庭球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코ー트
▲運動會‖京城大學豫科運動會 午前九時 淸凉里同校庭
▲마스께임‖府內女子中等學校마스께임 午後零時四十分 京城運動場

鍾路 韓靑食堂 (特價奉仕)
今日부터 營業革新週間
洋定食(七品高級製) 壹圓
日本定食 六十五錢
正宗한병끼워서 B
ステーキ 七十錢
キャベツ 五十錢
朝鮮定食(八品高級製) 七十錢
朝鮮定食 六十錢
支那料理定食 五十錢
朝鮮納酒 三十五錢
神仙爐 五十錢
煎骨 五十錢
白飯 二十五錢
支那八寶菜 四十錢
サンドヰッチ 二十錢
カレーライス 二十錢
ハイシライス 二十錢
溫麵 二十錢
ランチ特製 三十五錢
親子丼 二十錢
親子ウドン 二十錢
カツ丼 特大 二十錢
イナリ壽司 十五錢
ノリ巻 十五錢
만두국 二十錢
떡국 二十錢
어복장국 三十錢
비빔밥 三十錢
栗飯 二十錢
赤豆飯 二十錢
フライ定食 三十五錢
ミックス弁 三十五錢
소반 二十錢
上식 五十錢
花冠 三十錢
藥食 二十錢
正月 三十錢
(各種料理配達迅速)
專用電話光八番·二九七二番

이래도 저래도 가장 쓰기조혼 기름
ランラン 洋髮香油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東京市下谷區練塀町

生○器短小 機能障害를速治하라



▼男子의生殖器發育不全(短小屈曲包莖)을 物理的으로 肥大正常식히고 또 不自然行爲過度에因한機能障害를 早漏遺精夢精等의 性的治癒器가 發明되엿다 ▼男子로나서 性的缺陷이잇는것은 一生의大不幸이다 速히 肥大正常하게 健全한生活을 다하고 希望과慰樂과를獲得하라 ▼그럼에는 먼저무엇보다도 ホリツク博士의 世界的新學說에基한 登錄商標 ホリツク眞空水治器를 自宅에서秘密히 使用하고 物理療法을行하면 一回마다 效果가나타난다 ▼本邦創始! 本所專用과 技術이優秀함에잇서서 世界的名器이잇고 다른如何한模倣品이 出現하여도 斷然코비길수업는 眞價를가젓다 ◇ホリツク眞空水治器 (效果不完全한模造物에注意하라) 定價金五圓(送料廿五錢海外五十五錢) 只今곳(葉書로申込하면特許의新知識) 圖入說明書 要無料로密送함 꼭一讀하시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番地 東京新療法研究所

第一回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當選者發表

當選者名錄

師範部繪畫入選者氏名

命題	氏名	學校名
月尾島서	李鳳商	京城師範
牧場	朴商玉	全州師範校講習科
靜坐	李鳳商	京城師範
「포ー스」	同	同
寒菊堂所見	李永鎬	全州師範校講習科
教會堂보이는風景	朴商玉	全州師範
果園	朴商玉	同
教會堂보이는風景	同	同
靜物	千成煥	京城師範
殘雪	鄭燒容	同
風景	鄭 엽	同
殘雪風景	李動鎬	同
風景A	崔 善	同
轉換	李鳳商	同
風景A	金命求	同
風景B	金命求	同
早春山谷	李動鎬	同
風景B	金命求	同
風景B	崔 善	同
風景	李動鎬	同
同	金壽命	大邱師範二年
여름山	李槓雨	同四年
靜物	琴緯灝	同五年
夏日川邊	李槓雨	同四年
古木	金壽命	同二年
風景	朴在奉	同三年
夏日葉泉	金秋一	同
郊外	琴緯灝	大邱師範五年
街路	同	同
靜物B	朴在奉	同三年
薔薇花	任福岩	同五年
果實	同	同
牧丹	李寧毅	同四年

中等部繪畫入選者氏名

命題	氏名	學校名
古木	孫英奇	徽高三年
夕映	金鍾夏	中央基督青年學校
孔子廟	安敎甲	鏡城高普四年
卓上靜物	具韶會	中央高普五年
海景	池李圭	成興永生高普二年
初夏	孫英奇	徽高三年
靜物	同	同
海金剛	洪逸灼	培材高普五年
林檎	李泰植	徽文高普四年
林檎	李泰植	徽文高普四年
男子	洪逸灼	培材高普五年
廟	全長頴	鏡城高普四年
夕陽	金鍾植	第二高普五年
貞洞風景	金鍾夏	中央基督學校
雨後風景	孔利奎	培材高普五年
百日紅	李泰植	徽文高普四年
明太魚	洪逸灼	培材高普五年
校舍	洪河龜	鏡城高普四年
風景	朴俊煥	中央基青二年
街道風景	李海宗	第一高普五年
靜物	承東杓	五山高普四年
孔子廟	崔龍河	鏡城高普三年
晚秋	尹晟老	普成高普五年
隱居	金建中	鏡城高普五年
停車場風景	洪河龜	同四年
門	金建中	鏡城高普五年
人物	尹晟老	普成高普五年
墨畫(東洋畫)	申龍鉉	進明女學校
風景	金興東	成興高普四年
午後	梁在礦	成興永生高普四年
孔子廟	成柱燮	成興永生高普二年
山村風景	金鍾夏	中央基督青年學校
校門이보이는風景	高舜德	成興永生高普四年
成興의가을	同	同
붉은지붕이보이는風景	金聖仁	同 五年
田園의가을	同	同
風景	金鍾植	第一高普五年
스겟치	孔利奎	培材高普五年
雨後風景	同	同
初秋風景	李潤獸	第一高普四年
顏	孔利奎	培材高普五年
風景	承東杓	培材高普五年
靜物	同	同
風景	同	同
靜物	張基英	同 五年
芍藥	林俊鎬	松都高普五年
習作窓邊	林完圭	第二高普四年
항아리	金裕相	中央高普五年
靜物	李大源	第二高普三年
靜物	金裕相	中央高普五年
桃	林完圭	第二高普四年
仁川風景	千里駒	中東學校四年
校庭	梁瓊雲	貞信女學校四年
成興風景	金東成	成興高普二年
風景	陳鍾昊	培材高普二年
風景A	柳東宙	普成高普五年
어제꽃	李泰植	徽文高普四年
風景B	柳東宙	普成高普五年
溪流	朴成煥	海州高普
靜物	金仁洙	貞信女學校二年
標本	柳東宙	普成高普五年
靜物	金 煥	普成高普二年
風景	安日慶	東萊高普五年
靜物	申中善	第二高普二年
男子	洪逸灼	培材高普五年
(東洋畫)自畫像	宋興洙	大東商業一年
風景	朴俊煥	中央基督青年學校二年
風景	宋興洙	大東商業一年
將棋圖	金遠東	普正高普三年
明秀秋景	金永采	中等公民
靜果	申龍鉉	進明女高
夕陽	金鍾植	京城二高五年
蝴蝶採香	鄭元泳	昭和工科學校
風景	安日慶	東萊高普三年
따리아	朴鳳煥	漢城商業
向日葵	許 操	晋州高普一年
校舍風景	許 操	同
人物	尹晟老	普成高普五年
梅花	金錫柱	高敞高普五年
風景	李寅晟	金泉高普三年
風景	洪聖郁	培材高普三年
習字窓邊	林完圭	京城二高四年
風景	馬浚澤	培材高普五年
仁川風景	李智永	儆新學校
海岸風景	李智永	同
風景A	柳東宙	普成高普五年
山上風景	韓相運	第一高普三年
靜物	朴斗洙	中東學校
花甁	朱虎鉉	光州高普二年
風景	朱虎鉉	光州高普二年
카베쓰	鄭鎭洪	工業學校二年
風景A	洪命辰	松都高普三年
牧丹峰	崔榮林	光成高普三年
風景B	洪命辰	同
溪流	朴成煥	海州高普
風景	李建周	海州高普
自畫像	韓泰協	同
風景	劉斗濱	同
初秋의果實	韓泰協	同
蝴蝶探香(東洋畫)	鄭元泳	昭和工科學校
風景	河在淳	大邱工業補習學校
田園風景	吳是昌	大邱高普四年
庭園의一隅	朱聖龍	大邱高普四年
社務所의風景	成暉慶	大邱學院二年
野道	金在洙	大邱高普一年
다리잇는風景	成暉慶	大邱學院二年
初秋의果實	韓泰協	海州高普
길보이는風景	崔榮林	光成高普三年
牧丹峰	同	同
禮拜堂보이는風景	鄭學俊	平壤高普五年
길	同	同
貧村	鄭達雄	光成高普三年

初等科繪畫入選者氏名

命題	氏名	學校名
午後의빛	白仁均	壽松公普校
꽃	李明淑	同德女校六年
花	韓萬道	校洞公普六年
花	張在寬	校洞公普六年
風景	黃東洲	加明普校六年
先生님	申翔燮	校洞公普二年
大王鏡走	姜鍾采	壽松公普二年
社長賞花盆(元名植木鉢)	金寬雨	安城公普六年
電柱잇는風景	白仁均	壽松公普六年
風景	金甲順	加明普校三年
안레나와洋館	劉載玉	壽松公普四年
風景	鄭東涉	大邱壽昌公普六年
언덕위風景	金善榮	加明普校四年
學校의白兎	李三洙	壽松公普一年
鷄와兎	池浩永	壽松公普一年
寒町	白相均	壽松公普五年
風景	金英均	校洞公普四年
運動會	盧浩楨	齊洞公普三年
大王鏡走	姜鍾采	壽松公普二年
野球	禹相龍	壽松公普二年
掃除時間	李惠錫	壽松公普三年
花 / 姉妹三人	金金順 / 韓萬道	校洞公普三年 / 校洞公普六年
따리아	楊秉龍	校洞公普五年
林檎	金英均	校洞公普四年
婦人像	金嬿婉	同德學校三年
郊外	林奎元	加明普校四年
山잇는風景	金鍾基	輔仁普校四年
漢江風景	李 炫	校洞公普六年
府民館塔을中心으로	金裕權	壽松公普四年
屋上風景	安春模	校洞公普五年
風景	金相敦	同
따리야	楊秉龍	同 四年
花甁	徐珞錫	同
光化門아침	朴文鉉	同
花盆	李仁象	安城公普六年
風景	同	同
林檎과책	同	同
風景	玄 埜	校洞公普六年
宗廟	朴商雄	水下洞公普六年
風景	金圭漢	校洞公普二年
海水浴하는사람들	金容駿	水下洞公普二年
城北洞城壁의一部	李聖九	長薰普校四年
靜物	全曉俊	校洞公普二年
山잇는風景	金炳基	輔仁公普四年
野菜와果物	李 炫	校洞公普六年
지러가는가을風景	朴商雄	水下洞公普六年
南山잇는風景	申福均	輔仁普校四年
드레	梁雨萬	梨泰院普校三年
나의先生님	金在權	攻玉普校六年
城北洞城壁의一部	李聖九	長薰普校六年
風景	金萬圭	輔仁普校六年
드레	梁雨萬	梨泰院普校三年
風景	黃東淵	加明普校六年
風景	鄭淵周	齊洞公普五年
診察	馬浩俊	壽松公普四年
초가집	洪光洙	同三年
診察	馬浩俊	壽松公普四年
따리야	玄 埜	壽松公普六年
食事	李熙淑	壽松公普六年
따리아	具然明	校洞公普一年
坂道	申福均	輔仁普校四年
運動會	馬相駿	壽松公普一年
우리先生님	鄭三成	德怡公普校一年
西大門附近	金綾泰	攻玉普校六年
郊外	潘德吉	德怡公普二年
나무잎	金漢奎	校洞公普六年
屋上眺望	洪錫震	校洞公普六年
꽃	李眞淳	校洞公普六年
靜物	李 炫	壽松公普六年
府民館을望함	許 泳	壽松公普六年
曳網	諸河子	壽松公普三年
大東學校	尹錫八	齊洞公普四年
屋上風景	嚴柱錡	齊洞公普五年
友人像	玉愛謙	齊洞公普五年
思索	沈明淑	齊洞普校二年
風景	任玉順	加明公普四年
朝會	文奉煥	齊洞公普四年
屋上眺望	金圭漢	校洞公普六年
獨立門	權容九	華山普校五年
坐像	李鍾玉	金堤公普五年
草家잇는風景	鄭鎭潤	齊洞公普六年
風景	朴元春	金堤公普五年
蘭	張世甲	長興公普六年
風景	崔萬鉉	齊洞公普六年
靜物	許同會	華山普校六年
風景	金成培	金堤公普六年
靜物	趙南杓	貞洞公普六年
靜物	黃觀雨	貞洞公普六年
坂道의風景	朴商雲	貞洞公普六年
夏日別莊	邊順福	好壽敦女普六年
山莊夏景	張金玉	好壽敦女普六年
鄉路即景	張金玉	同 上
봄의昌慶苑	洪茂和	齊洞公普六年
花	權基英	校洞公普六年
花	金英均	校洞公普四年
窓邊의꽃	楊秉龍	校洞公普五年
初秋村景	林順業	好壽敦女普六年
展望	潘德吉	攻玉普校六年
安城	李正任	安城公普六年
植木鉢	金寶雨	安城公普六年
레코ー드	李正姙	安城公普六年
林檎과冊	金寬雨	同
花	李 炫	校洞公普六年
꽃	申延秀	校洞公普四年
天主敎堂보이는風景	金相夏	校洞公普四年
自動車가는風景	李興默	齊洞公普二年
先生	金永祐	校洞公普四年
봄의寫生	金俊東	同五年
다릉박질	洪光洙	齊洞公普三年
淸凉里藥水入口	徐光範	長薰普校五年
장승	崔丙天	梨泰院普校一年
공부	盧浩楨	齊洞公普二年
坂道	申福均	輔仁普校四年
汽 車	李東鮮	齊洞公普一年
朴先生님	車貞烈	梨泰院普校三年
一山亭에서	朴正元	(元山)光明普校六年
靜 物	趙炳煥	光明普校六年
꽃(가나)	高丙洙	大田第一公普四年
風 景	黃圭鎬	同三年
軍 人	吳陽燮	同二年
실 과	李容善	同五年
여름放學	張時仲	同三年
꽃잇는靜物	宋琇永	同高二年
圖 案	鄭世泳	同
圖 案	林用淳	工科學校三年
圖 案	邊宇鳳	同一年
圖 案	趙在熙	同
風 景	趙載錫	同五年
줄넘기	韓瑛兌	梨泰院普校一年
休憩時間	白賢洙	大邱公普二年
風景	權泰模	同五年
海邊의집	崔萬鎬	同
託兒所	崔萬鎬	同
가방	權泰模	同
病院	金相吉	同四年
綠色臉譜	權泰模	同五年
風景A	李鋼石	南陽公普六年
風景B	李鋼石	同
風景C	金善永	同
明朗	金舜珍	(開城)貞和女普四年
善竹橋	陳明順	同
滿月臺全景	李相元	貞和女普五年
風景	趙完宗	黃海公普三年
靜物	林秉正	全州第二公普六年
風景	趙確楨	同五年
風景	林秉正	同三年
海水浴場	宋基斗	同五年
門	鄭守東	全州第一公普一年
花草	金英圭	同二年
工場	李福洙	(京城)齋法學校三年
여름	洪炳七	全州第一公普六年
風景	柳其南	同
風 景	金鍾基	全州第二公普五年
꼬푸라	閔庚圃	輔仁普校四年
風景	金鍾基	同
여름	[illegible]	同
敎室으로창밖風景	申福均	同
風景	申福均	同
風景A	高明植	同
風景B	高明植	同
風景	崔甲得	大邱壽昌公普四年
風景A	朴英敦	同
風景B	朴英敦	同
靜物	金圭錫	同
風景	安福禮	同
校內	裵鍾甲	舟山公普五年(扶安)
우리洞里	金永寓	同二年
運動會	鄭弘任	蘇浦公普一年
들	趙東河	水下洞公普一年
가방	張命俊	北面公普三年(開豐郡)
고구마	安永淳	同
風景	鄭東涉	大邱壽昌公普六年
市街	朴 永	同
風景	朴東俊	同
風景	金奎昌	同
靜物	鄭東涉	同
風景	金東烈	同
언덕우집	尙鍾植	(開豐郡)進鳳公普三年
밤의畵面	李甲得	大邱公普四年
간나	張洪鋼	咸平公普五年
果物	曹大斗	同
果物	金應用	三年
果物	林鍾譜	倭館公普六年
그레용	尙鍾植	(開豐郡)北面公普三年
風景。	金東烈	大邱壽昌公普六年
우리學校	尙찬植	北面公普三年(臨湍)
靜物	田蓉元	梅洞公普五年
電車	趙東河	水下洞公普一年
우리洞里畵者	朴昇緒	沃川公普六年
運動會	盧浩楨	齊洞公普三年
風景	韓祐性	忠州公普高一年
집	安炳鎭	咸興第一公普六年
꽃	金圭漢	校洞公普
草家잇는風景	鄭鎭潤	齊洞公普六年
미끄럼질	李英熙	齊洞公普四年
집넘어보이는聖教堂	金基大	平壤公普六年

彫刻部

命題	氏名	學校名
老人像	尹孝重	培材高普五年
自作像	同	同
粘土像	張基英	五山高普

中等部刺繡及工藝品入選者氏名

命題	氏名	學校名
곳손	辛昭英	同德女高三年
鏡掛	李敬愛	培花女高三年
自作像	尹孝重	培材高普
花곳손	李敬愛	同
수저집	李敬愛	同
夕景	朴[illegible]	同三年
파렌케이스	韓孝德	同一年
파렌케이스	劉福山	同
파렌케이스	金熙玉	同
파렌케이스	崔鎭熙	同
葡萄狀掛板(合作)	崔致範	渭原工科
桃	白玉淳	貞信女高二年
菊花	李熙淡	同三年
松鶴	張甲德	同四年
	李壽鳳	羅南女高
釣魚	朴松月	同二年
곳손	尹昭禮、李福順	進明女高
屛風	成庚順	向上女子實業
人形	李玉奎	向上女實
버개	宋山女	同
버개	金相禮	同
방석	朴信烈	培花女高
鶴座	李今仙	向上女實
鸚鵡屛風	成庚順	同
墨菜屛風	李廷淑	同
高麗模樣(合作) 郭潤福 李敬煥	徐淑子 李載玉	大邱女高普
高麗模樣(合作) 吳福紅 徐啓熙	羅慶安 李斗理	大邱女高普
飛行機	白栗人	開城高普
鳥	金順禮	槿花女實
秋日讀書	趙斗永	東星商業
京仁線模型	朴在善	善隣商業
千島模型	李善鎬	同
江坤模型	洪永基	同
高麗花瓶(合作) 郭潤福 李敬煥	徐淑子 李載玉	大邱女高普
酒杯硯	柳澤潤	渭原工科
松葉硯	柳澤潤	同
蜻蛉硯	崔致範	同
단추一組	金現彬	同
단추一點	金現彬	同
蘭紋硯	金現彬	同
葉形硯	金炳寶	同
雙龍昇天	元希貞	同
梅花	朴永俊	同
南池宴	姜旭馨	全州師範
蓮	姜仁玉	槿花女實
鳥	李福諾	同
霧吹	羅鍾德	女商二年
霧吹	嚴庚男	同
霧吹	張貞子	同
방석	朴信烈	培花女高
高麗模樣(合作) 吳福紅 徐啓熙	羅慶安 李斗理	大邱女高普
獅子紋	權尙容	京城二高
鶴	權尙容	同
染物	朴潤采	五山高普
수저집	金德熙	同德女普
엽낭	李慶淳	同
葉形硯	金炳寶	渭原工科
冊床	黃淑子	向上女實
冊床	鄭己玉	同
書	金順熙	同
레ー블센터ー	林正任	同
레ー블센터ー	洪泰意	同
兒服	金貞淑	同
木枕	李玉奎	同
炊事服	金順姬	同
風景	金順伊	同德女高
南池宴	姜旭馨	全州師範
繡簇子(合作) 許貞玉	姜和順	向上實業
入形	全貞淑	同
수저집	韓蓮丹	同
곳손(合作)	尹昭禮 李福順	進明女高
風景	金順伊	同德女高
花鳥	申任鉉	同
花鳥	李義貯之	同
나포레옹像	韓順澤	同
大阪城	洪銀順	同
花鳥	金福禮	槿花女實

初等部手工入選者氏名

命題	氏名	學校名
레ー블보	崔成蘭	協成普校
風景	洪性玉	同
나비	明正玉	同
레ー블보	陸庚姃	芙江普校
가방	沈昌淑	齊洞公普
小兒服	安寅淑	協成普校
부채	金鍾彩	同
부채	梁德順	同
카렌다ー	李富根	同
體操보	辛貞熙	同
電燈보	孫癸淑	同
레ー블센타ー	朴小斤貴	同
레ー블센타ー	李富根	同
色紙	趙時子	同
밥상보	李莊蕙	水原三一
레ー블센타ー	柳嘉壽	同德女普
秋草	安辰熙	同
秋景	李東馥	阿峴公普
봄들	李華子	同德女普
農村春景	明正玉、李奎南、朴小斤貴	協成普校
春風	林全熙	齊洞普校
들	朴順鄕	同德女普
가을川邊	卓成男	同德女普
摘花	金順泳	啓成普校
春風	滕樂姬	齊洞女普
景致	朴沃榮	啓星普校
雪景	宋京福	同德女普
富士山	孔貞順	金堤公普
富士山	李富善	水原三一
農村春景	明正玉 李圭男 朴小斤貴	協成普校
洋館잇는風景	金順培	齊洞女普
雪景	李銀珠	協成普校
牧丹	李慶馥	齊洞公普
釣魚	羅星廉	芙江公普
	金七淑	協成普校
富士山	朴善勝	同德女普
가을川邊	卓成男	同德女普
景致	朴玉分	水原三一
校	金正洙	潭陽公普
籠籠	朴宗秀	同
飯籠	金材洙	同
改良籠	申東順	同
釣籠	李泰錫	同
手提籠	金容基	同
紙籠	鄭在弼	校洞公普
草編物	林鍾文	外山公普
레ー블센터ー	金敬華	東大門普校
곳숀	宋惠順	同
床襟	吳玉彙	東大門女普

雙虹舞 【5】

方仁根 作
金奎澤 畫

虫先生 (五)

광훈은 큰사랑방으로 들어갓다。박면장은

『거기 안좃오』하고 말하엿다 광훈은 쪼그리고 안즈니

『편히 안즈시요』하고 정답게 말하엿다。

『말슴 낫춰하십시요』하는 광훈의말을 듯고 박면장은 정색을하며

『아니오 조선사람은 말에 너무도 칭하가 만허서 재미업는데요。공대하는말、반말、해라、하게、하소……몃가지가 되는지 알수가 업서요 나는 친척관계나 잇스면 분득이 해라도하고 하게도 하지만 다 경어를 쓰자는 주장이요』

하고 말하는 박면장은 구레나루와 머리가 반백이나되고 풍채가 늠늠하며 기골이 장대하야 신수조흔 로인이엿다。그는 넷날시절에는 무과출신으로 참령까지 지내고 호기당당하며 활잘쏘기 말달리기로 쾌남아이엇다。

지금도 산양총의 허가를 마터가지고 로인이 산으로 다니며 산양하기를 즐겨하엿다。

이십여년전에 여기로 락향을하여 한적한생활을 하는데 초면과 군청에서면장을 하라고 하는것을 여러번 사양하다못해하는것이엇다。

시절。못맛난 영웅이라 으레하여 고요히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것을 끌어낼때 그는 뭉시 귀치안혀지마는 너무도 강권해서 일을마럿다。

그러나 한번승락을하고 면장이된뒤에는 동내를 위하여 전심전력일을하고 또 자선사업도 하여 이촌에서는 박면장을 큰안물로 존경하는것이엇다。말할 하고 경우 쪽째지고 인물잘나고 그리고도 인정이 잇서 못사람의 호감을 사는것이엇다。

그는 이촌의 왕이라고 할만하고 그가 한번길에 떡 나시면 센부귀천 남녀로소할것업시 그에게 굽실거리는것이엇다。

『그래 요새도 그 곤충이라던것을 연구하시요』

하고 박면장은 우들뿌리 담뱃대로 담배를 먹으며 말하엿다。이집에는 담뱃대、재터리、병풍、문갑 무엇이나 다 윤이 번즈르르하게남아 보기주하기 어려운 귀물들이엇다。고롯하나도 그래로 세간전부가 그러하엿다。

『네ー』하고 광훈은 대답하엿다

『암 무엇이나 철저히 연구하는것은 조흔일이요 나는 그방면을 잘 모르지마는……』

『뭐 연구할거야 잇습니까만은 그저 우연히 취미를드려 인제는 불수가엽습니다』

『그럿구말구 나는 그럽게 한가지를 파고드는것을 조아하오 시속청년들이 공연히 돌팔방술 덤벙하고 하나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깨스터대는것이란 참괴이지。그게 망조야 즉 말하자면 라라이거든! 무엇이나 파고들고 깁히 전문으로하는 연구성이 우리네에게는 부족하단말야』

『네 그럿습니다』

『좌우간 고루한 룸은어의말이라고 우숩게 생각할게아니라 림선생도 그 곤충학이라든가 지금연구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적어도 조선서 크면 세계적 학자가되려고 할게야 그렴치못하면 아야 그만두는편이낫고……』

광훈은 이처럼 훌륭한 리해와 권고를 일생처음 바터보는 고로 몹시 감격하엿다。그는히망과 용기가 생기는것가탓다。

어쩌면 이러한 르면이 그러한 말을 할때하고 광훈은 위대한 영웅이나 천다보는것처럼 바라보며

『네ー올흔말슴입니다』하고 대답하엿다。

『그런데 참 내가 래일경성좀 갓다올일이 잇는데 그동안 집좀 잘보아주오。하인뿐이요 식구란 여인네뿐이어서 늘어릴가도 많이노하지 안타니 인젠 림선생이 집에잇스니까 한결 맘이든든하단말야』

『어련날 되십니까』

『글세 사사일도 잇지만 공무로 가는것인데 암만해도 십여일 걸릴걸요』

『그러면 넘게서도……』하고 광훈은 공연한 말을 못는다고후회하엿다。앗가 은연이 서울은 아니가겟다고 하엿지마는 그래도 혹시일수업고 궁금해서 물어본것이엇다。

『아니오 그애는 공부를 중지시켯소 벙도무서우려니와 서울은 사람을 버리게하기가 쉬운곳이니까。그만치 공부햇스면 인제는 맛당한데 골라서 시집이나 보내지』

광훈은 어떠한이 자기를 두고 한는것일가 혹은 벌서 오면의 혼인말을 작정하고 하는말일가하는것이 공금하엿다。

產業

繭共販出荷激增
自家繭消費減少와價格好調로
全南慶南北으로부터出廻繼續

夏秋繭共販은 開始하야 各道에서 開設中인데 今年은 變態的氣候로 因하야 深刻한 被害를 입엇슴에도 不拘하고 一方에잇서서는

一、南朝鮮은 비롯하야 各地의 自家繭消費가 風水害로 因하야 激減한것

一、繭價의 好轉에 依하야 共販出貨를 實行할것

等으로 各地의 共販出貨는 激增傾向으로보이어 憂慮되엇든 製絲原料의 不足念慮는 解消되고 양으로 繼續하야 全南 慶南 慶北으로부터의 秋繭이 出廻되고 잇다

牧丹江沿岸에 滿洲파루푸進出

【淸津】 滿洲「파루푸」工業株式會社에서는 牧丹江沿岸의 無盡藏인 森林을 目標로 일즉이 同地方에 事業擴張을 劃策하여오든中 近者에 牧丹江沿岸 樺樹林子에 大規模의 工場을 建設하기로決定하고 敷地四十數萬坪을 買入 年產一萬噸以上의 機械設備를하고잇다한다

移出港在米
四十一萬八千石
比前年十一萬石減

全朝鮮主要港의 九月末日現在 在米高는 四十一萬八千七百六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十一萬六百八十五石 前月末에 比하여 三十一萬七百二十五石의減少이다 이제 그內容을보면 다음과갓다(單位石)

日本內地米	一、八一五
正租	五二、五六○
玄米	三四三、五七一
白米	一八、八七八
臺灣米	一、九四五

그리고 各港別은 如左하다

▲釜山
日本內地米	三六四
正租	八、八二四
玄米	六○、九三三
白米	四、一一九
臺灣米	四三一
合計	七四、六七一

▲馬山
正租	二、一○○
玄米	二、六七○
白米	三○○
合計	五、○七○

▲麗水
正租	三、五二五
玄米	六五四
白米	四一四
計	四、五九三

▲木浦
正租	五、五○九
玄米	四八、四一九
白米	四二二
計	五四、三五○

▲群山
日本內地米	一、一六七
正租	八、二七四
玄米	八三、五三五
白米	八八九
計	九三、八六五

▲江景
日本內地米	一六○
正租	九八三
玄米	三、八六三
白米	一○○
計	五、一○六

▲仁川
日本內地米	二二四
正租	一五、五一九
玄米	一○七、九一五
白米	四○一
臺灣米	九四四
計	一二五、三○三

▲鎭南浦
正租	六、八○七
玄米	三五、三七○
白米	一二、○五三
計	五四、二三二

▲元山
正租	六一九
玄米	二一○
白米	一八○
臺灣米	五七○
計	一、五七九

農牛를配付코 代金은年賦償還
牙山金組에서實施키로決定

【牙山】 忠南牙山金融組合에서는 一般組合員의 利益을 圖謀키爲하야 一萬七千圓의 資金으로 農牛二百三十頭를 買入하여 組合員二百三十名에게 配付하기로되엿는데 農牛代金은 同組合에年賦로支拂하기로되엿다 한다

魯城金融組合創立

【論山】 論山郡魯城邑에는 일직부터 論山金組의 出張所가 設置되야 庶民金融機關으로 活動하여오든바 今般 論山金組에서 分離獨立하야 魯城金融組合을設立하기로 되엿는데 지난十五日 午後一時에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의役員을 選任하엿다

組合長 鄭大圭 監事 朴在九 同朴弘緖 同朴健和

地方特殊產業에 助成金交附
殖產助成財團의計畫

朝鮮殖產助成財團의 今年度事業은 水利組合多收穫品評會助成 六十九個所에 二千七百七十圓의 助成金을 交附하는外에 今年度 新規計畫으로 左記와 如히 地方特殊產業의 助成發達을 圖하기로되엇다

各道知事의 推薦에 依한 特殊產業에 對하야 五千五百四十五圓의 助成金을 交附할

二、助成產業의種目

▲開城紙細工共同組合ㅣ(京畿)
▲俗離山法住寺木工傳習所 (忠北)
▲淳昌產業組合 朝鮮紙加工 (全北)
▲務安郡農會 久留米絣機織 (全南)
▲下萬坪農村振興組合 木器 (慶北)
▲釜山府 家具塗裝(慶南)
▲沙里院 甘藷(黃海)
▲平壤女子副業組合(平南)
▲博川郡農會絹毛絲(平北)
▲原州郡漆組合(江原)
▲長津郡傭林會(咸南)
▲明川郡農會製紙(咸北)
▲水原農事試驗場 製粉用小麥栽培
▲朝鮮纖請業水產組合

朝郵商船中心 米輸送協會結成
十一月부터責任積取

鮮航同盟會의 解散以來 朝鮮米輸送에는 責任積取契約이깨저서 朝鮮米의 日本內地輸送上 關係方面으로부터 無契約時代의 是正을 絶叫하야 二水會와如한 過渡期的現象이엇는데 總督府의 要望도잇서서 來十一月의新穀期부터 朝郵、商船의 二社를 中心으로 船會社八社間에 새로 朝鮮米輸送協會가 設立되기를 決定되엇다 그러고 新協會에서는 朝鮮米輸送에 對하야 責任輸送契約을 締結할豫定으로 이미船會社、總督府間에도 諒解가成立되야 新團體는 豫算案을 行하지안키로되어 朝鮮米輸送에도鮮航會解散以來 다시 新統制의機運을 生하리라한다

▲秋繭取引市勢

月日	場	所	高價	低價	買繭	數量
九·二四	忠北	淸州	三·五三	一·八○	[illegible]	[illegible]
〃	同	沃川	三·五一	一·九九	[illegible]	[illegible]
〃	忠南	牙山	三·四九	一·七八	[illegible]	[illegible]
〃	同	燕岐	三·五三	一·六○	[illegible]	[illegible]
〃	同	瑞山	三·五五	一·七六	[illegible]	[illegible]
〃	慶南	晋州	三·五五	二·一四	[illegible]	[illegible]
〃	全南	光州	三·五三	二·一四	[illegible]	[illegible]
〃	同	咸平	三·五四	二·二五	[illegible]	[illegible]
〃	全北	完州	三·五三	二·一七	[illegible]	[illegible]
〃		南原	三·四七	二·○六	[illegible]	[illegible]
〃		井邑	三·五三	二·一○	[illegible]	[illegible]
〃	江原	金化	三·三九	一·九九	[illegible]	[illegible]
〃	咸南	咸州	三·三○	二·○○	[illegible]	[illegible]
九·二四		文川	三·二一	二·○二	[illegible]	[illegible]
〃	京畿	水原	三·三六	一·七二	[illegible]	[illegible]
〃	平南	順川	三·三九	一·九九	[illegible]	[illegible]
〃	黃海	鳳山	三·五二	一·八○	[illegible]	[illegible]
〃	慶北	尙州	三·四七	二·○五	[illegible]	[illegible]
〃		安東	三·四四	二·三三	[illegible]	[illegible]
九·二五	忠南	牙山	三·三六	一·七二	[illegible]	[illegible]
〃	同	燕岐	三·四一	一·八七	[illegible]	[illegible]
〃	咸南	咸州	三·一九	一·六○	[illegible]	[illegible]
〃	平南	順川	三·二七	二·七二	[illegible]	[illegible]
〃	平南	成川	三·三三	一·六九	[illegible]	[illegible]
九·二七	慶南	晋州	三·三三	一·三六	[illegible]	[illegible]
九·二六	同	蔚山	二·六八	一·九九	[illegible]	[illegible]
〃	江原	金化	二·六八	二·○三	[illegible]	[illegible]
〃	忠南	瑞山	三·五五	一·七一	[illegible]	[illegible]
〃	全北	南原	三·三四	一·九九	[illegible]	[illegible]
〃	同	完州	三·四一	二·一○	[illegible]	[illegible]
〃	慶北	尙州	三·三六	一·六八	[illegible]	[illegible]
〃	同	安東	三·三三	二·二四	[illegible]	[illegible]
〃	咸南	文川	三·二○	一·九四	[illegible]	[illegible]
〃	平南	成川	三·四四	一·七二	[illegible]	[illegible]
〃	忠北	沃川	三·二七	二·三三	[illegible]	[illegible]
〃	咸南	端川	三·四一	一·七三	[illegible]	[illegible]
〃	忠南	燕岐	三·四九	二·○九	[illegible]	[illegible]
九·二九	江原	金化	三·一九	一·六二	[illegible]	[illegible]
〃	咸南	咸州	三·四四	一·九二	[illegible]	[illegible]

日用商品市況

三日 京城市內 海產物砂糖及麥粉市況은 如左하다

▲明太保合

乾明太는 秋夕의 大需要期를지나서 需要가 減少의 傾向으로 目下 入荷로 漸減되고잇다今日 市勢(二十五尾)의 價格은 二十一圓 乃至 二十一圓五十錢으로 保合이다

▲앙치 不振

앙치는 需要減退으로 一般의消費가 漸減의 趨勢인데 今日市勢는 한조(二尾)에 二圓 乃至 三圓五十錢으로 前週와갓다

▲메르치 小騰

메르치는 入荷、實行共히 普通狀態이나 市內는 多少品薄을告하야 市勢는小騰을 示하야 每貫 二圓乃至二圓八十錢가량이다

▲미역 底强

미역은 인제부터 需要期를 向하고잇는만큼 市況은 비아흐로 活況을 呈하려고한다 今日市勢는 한조(二十납)에 三圓乃至 三圓六十五錢가량이다

▲연어 小低

乾연어다 秋夕節의 大需要期를 지나서 亦是 需要의 減退를보아 今日은 十二貫入한짝에 九圓五十錢 十貫半入한짝에 七圓五十錢으로 小低를 示하바 例年에依하야 今後 需要는 回復되리라고한다

▲大口魚 保合

乾大口는 本年需要期가 不振狀態로 目下入荷도 적어서 今日市勢는 每斤에二十五錢가량이다

▲砂糖 弱保合

砂糖은 法貨의 切下로 低落이 豫想되엇든바 和蘭의 新貨幣維持主義으로 目下는 平靜한 狀態이나 和蘭의 平價切下도 必至의것으로 보이는만큼 先安가豫想 되리라고한다。今日 六十斤(百斤入) 一袋市勢는

白砂糖	二一、一○
靑砂糖	二○、二○
黑砂糖	一一、一○
分蜜糖	一七、四○

▲麥粉 保合

麥粉은 原料麥의 依然高價保持로 保合을示하야 今日 一袋(二十二斤入) 一袋市勢는 四圓九十錢가량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三四八八	金銀鑛	全南長城郡東化面、森西面、潭州郡本良面	九月七日	釜山府[illegible]町 代表者 [illegible] 同望城面 [illegible]
三四八九	텅스텐鑛	江原洪川郡瑞石面	九月七日	京城府櫻井町 代表者 [illegible]政市 同鐘路一丁目 柳元玉
三四九○	金銀鑛	慶北尙州郡化西面、修倫面、高靈郡雲水面	九月七日	延城郡支鳳面 代表者 朴璽烈 同 朴[illegible]
三四九一	텅스텐鑛	忠北槐山郡靑川面	九月八日	信川郡信川面 代表者 吳必孝 京城府孔德町 [illegible]成雲
三四九二	金銀鑛	平北楚山郡南面	九月八日	京城府明治町 小林米男
三四九三	砂金	平北寧邊郡北新峴面	九月九日	寧邊郡寧邊面 代表者 柳在淸 同南松面 崔秉興 同 洪承奉 同 吳成鳳
三四九四	金銀鑛	京畿金浦郡高村面	九月九日	京城府和泉町 徐丙韶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八五九	京畿安城郡寶蓋面、大德面、安城面	九月七日	安城郡寶蓋面 積財鑛業株式會社
一三三○五	京畿開豐郡嶺北面	九月七日	京城府太平通 代表者 恒岡又以知 同阿峴町 崔秉楨
九九四六	忠北淸州郡淸州邑、四州面	九月七日	淸州郡四州面 代表者 眞崎季正 東京市中野區 大喜多筆一 西宮市大井手町 小澤勝之助
一三九三二	忠南靑陽郡大峙面	九月七日	禮山郡禮山面 代表者 金浴元 同捕橋面 鄭澤春 同光時面 安商稷
二一八○	忠南唐津郡沔川面、須城面	九月八日	京城府松峴町 有賀光助
八二七六	平南平原郡順安面、東岩里	九月八日	京城府樂園町 代表者 崔鎬 開城府南本町 金正熙 同東本町 尹明洙
一○三三○	江原淮陽郡安豐面、通川郡碧養面	九月八日	洪原郡洪原面 代表者 金玩在 小倉市大字砂津 常岡秀子
一一四二六	忠北槐山郡淸安面	九月九日	淸州郡北二面 代表者 李松鶴 金鳳姬
一○一三七	全北任實郡三溪面	九月九日	金堤郡金溝面 二階堂治郞吉
一二八二四	全南海南郡三山面	九月十日	釜山府佐川町 代表者 有光敬次郞 釜山府富民町 柏原保治郞
一二六四六	慶北盈德郡柄谷面、江原蔚珍郡平海面、溫井面	九月九日	盈德郡寧海面 代表者 金基成 同 朴鳳述 南宇炳
一一五五六	江原淮陽郡下北面、咸南安邊郡衛益面	九月九日	京城府長沙町 代表者 尾崎元由 薛植馬
一二五二一	江原淮陽郡下北面	九月九日	海州郡海州邑 代表者 薛元植 尾崎由馬
八二九八	咸南新興郡下元川面	九月九日	京城府南大門通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八四六二	同	同	同
八五一五	同	同	同
八五二四	同	同	同
八三一二	平北定州郡高安面	九月十日	京城府孝子町 朴廷彬
一三三○一	江原金化郡遠南面	九月十日	大連市富久町 永尾五平
一二八四三	平北熙川郡熙川面	九月十一日	熙川郡熙川面 代表者 金洙一 京城府竹添町 崔昌學 昌城郡東倉面 王熙淳
八四八八	全北井邑郡永元面、古阜面德川面	九月十四日	京城府本町 代表者 森辰男 同苑南町 黑田德太郞 元山府海岸通 兒島軍太郞 京城府東四軒町 梁正煥 慶山郡慶山面 任龍佑

本社接受水害救濟品 (十月三日現在)

物品合計 十四萬六千六百九十三點
穀物合計 三十六俵六升六合

아리다라婦人會 衣 一六點
讀大善華 四點▲申俊乘華 二點 金歡喜心 三點▲朴喜門行 四點 白自覺 三點 尼崎市

水原進明幼稚園 衣 一二七點 (慈母一同)
강효식 四點▲김선식 五點 김수원 三點▲김정례 六點 김명균 二點▲박덕용 五點 백수복 九點▲신현옥 九點 신현득 七點▲이병수 三點 이옥분 七點▲이래은 二點 이용자 三點▲정연호 一點 장로규 三點▲차지순 五點 천철연 七點▲한희숙 六點 홍기호 七點▲홍경희 三點

順安支局經由 衣 七六點
順安義明學校女子部 五○點 池達龍 九點▲朴美利岩 七點 金洙達 四點▲金吉永 三點 崔正淑 三點▲順安病院 一○○圓

淸津支局經由 衣 一、一○五點
裕豐商店 七點▲崔水原 十點 南潤九 三十點▲涌光鎬 十五點 南鐵、南福順 教科書 二十九卷 曹賢寺 百六點▲安息教會 六十六點 李容燮 藥品八點▲洪淳權 五點 金忠培 四點▲太陽堂時計店 三點 崔致勳 二十點▲朴申順 九點 海星學校生徒一同 五十五點 淸德普通學校生徒一同 五十五點 朴任順 五點▲第一公普校生徒 二點 金剛佛教婦人會 四百二十五點 嚴鳳山 同一足▲康實謙 一點 康熙謙 靴一足▲康秉吉 一點 高粉女 同一足▲金炳潞 一點 李申俊 同一足▲康寶謙 一點 辛龍達 同一足▲李長壽 一點 金玹錫 同一足▲郭鍾玉 一點 李睿培 一點▲裴明淳 一點 金炳錫 一點

金海支局經由 衣 二七六點
金南順 二點▲鄭敬愛 二點 安小振 五點▲金命順 二點 裴貴全 二點▲薛甲順 八點 柳貞玉 四點▲金先伊 參一升 金任善 參一升三點▲金潤大 參一升 河變連 一點▲金必守 一點 朴岳伊 二點▲梁世任 一點 朴根岳 四點▲具又明 一點 金末順 三點▲崔鳳順 二點 金壽福 四點▲黃福連 七點 白星子 一點▲崔順伊 二點 裴金玉 二點▲宋桂子 一點 金昌烈 一點▲許三榮 一點 鄭榮祚 一點▲朴云善 四點 金福順 七點▲金玉田 五點 李施善 一六點▲崔貞子 一點 鄭炳守 二點▲白金珠 三點 卯信愛 三二點▲金玉珠 四點 金貞順 二點▲徐甲辰 二點 梁富連 二點▲李末祚 一點 宋粉紅 一點▲閔富連 三點 金林守 二點▲金順連 一點 金玉子 四點▲裴鳳守 二點 孫在順 一點▲權明煥 一點 朴末連 三點▲鄭德芝 二點 裴南玉 二點▲崔日順 一點 鄭福善 一七點▲朴德珠 一點 魯次敎 四點▲禹玉芝 五點 朱玉守 二點▲裴東烈 一點 金小禹 一點▲白命福 二點 姜春玉 二點▲裴末守 二點 姜鏡波 一點▲姜錫模 二點 朴末弼 一點▲朴貴任 一點 金禮周 四點▲金玉周 二點 林順伊 三點▲金好善 二點 朱榮守 四點▲安貴祚 二點 金小守 七點▲金載順 二點 嚴敬文 七點▲裴於辰 七點 姜赦珍 三點▲金愛仙 五點 金容俊 四點▲金弼蘭 三點

會寧支局經由 衣 四九五點
金京祐 二四點▲蔡來櫻 一四點 印彰敏 一六點▲崔龍植 一○點 兪文協 一○點▲涵命熙 七點 李在煥 九點▲李炳洙 五點 羅九燮 八點▲劉載九 五點 朴星君 八點▲盧泰鳳 五點 馬粉玉 八點▲禹貞順 七點 崔弘奎 六點▲曺秉寬 四點 李秉龍 五點▲金相尹 四點 元會喆 四點▲李秉蓮 四點 金景順 四點▲金昭王 四點 馬山屋 三點▲金龍慶 三點 韓元玉 三點▲河仁淑 三點 計淑子 三點▲朴南波 三點 金鍾大 三點▲朴昌駿 三點 金汝吉 三點▲宋金子 三點 申英淑 三點▲李九備 二點 金逢珠 二點▲金元重 二點 李貞熙 二點▲兪眞弘 二點

金鍾會 一點▲印英蓉 一點 安順伊 一點▲明月屋 一點 金應約 二點▲金鶴黃 一點 金萬星 一點▲李相順 一點 金河寬 一點▲李玉振 一點 許時鎬 二點▲尹興烈 一點 康亨權 二點▲鄭周好 一點 具亨吉 一點▲李仲玉 一點 金昧松 一點▲朴東根 一點 具秉會 一點▲李秉根 二點 權達保 一點▲金春星 二點 陳貴重 二點▲吳業鐵 一點 洪成淑 一點▲李錦花 一點 金君子 一點▲李玉子 一點 崔庚順 一點▲李재云 一點 許鳳今 一點▲鄭文好 一點 金斗星 一點▲朴南根 一點 金新星 一點▲羅善學 一點 尹克燮 一點▲崔氏兜翰行 一點 方福子 一點▲鄭氏萬德華 一點 劉惠善 一點▲曹氏恩法華 一點 金亨燮 一點▲咸氏淨法華 一點 具氏大善華 四點▲金載蓮華 一點 金月蓮華 四點▲沈氏淨土行 一點 朴普善華 一點▲具玉蓮華 一點 姜合蓮華 二點▲金大成華 一點 李萬年華 三點▲許古粉 一點 金氏平蓮華 四點

私立明榮學校取扱分 ▲第一學年一學級 三十點 ▲第一學年二學級 二十一點 ▲第二學年一學級 六十點 ▲第二學年二學級 五十點 ▲第三學年 三十點 ▲第四學年 三○點

會寧天道敎宗理院取扱分

李玩洙 七點▲尹得周 二點 李頎祥 一四點▲李仁穎 四點 李仁寬 二二點▲李仁杰 一點 崔鎭俊 一點▲廉好成 四點 南玉順 五點▲孫基連 一點 朴英觀 四點▲廉德鎬 五點 金貴男 一點▲鄭元朝 四點 池京龜 五點▲宋英鎬 一點 李基福 五點 會寧支局經由個人分 一○點▲金鋼玉 六點 孫箕範 一點 姜錫秀 一點

木浦支局經由 衣 二九五點
經濟洋服店 二八點▲金鍾泰 一四點 徐奉珍 一點▲金武烈 一點 朴時龍 四點▲牟景賛 一點 宋敬順 三點▲丁海哲 一點 裴和九 六點▲吳萬德 五點 李春發 五點▲李正心 一點 姜보연화 五點▲裴주실 一點 姜大神閣 五點▲金明順 三點 尹成初 二點▲昌信旅館 二點 李根植 二點▲李丙來 三點 裴成基 五點▲洪宗植 二點 禹弘奎 五點▲金相太 一點 金鳳述 一○點▲迪紅九 六點 金鍾衍 六點▲金元五 七點 金鍾煥 五點▲朴仁京 七點 崔汝章 四點▲玄二鎬 五點 金大元 四點▲丁根早 十點 崔貫順 二點▲姜福子 三點 黑山面長守 三點▲姜大振 四點 梁萬守 二點▲吳成今 四點 李合寅 三點▲孫宗日 二點 朴福南 二點▲蔡圭文 四點 洪時奉 三點▲朴玉 三點 千相男 七點▲金和銀 一點 朴鍾大 二點▲任무루마 二點 金魯洙 四點▲徐桂行 五點 金得蘭 九點▲朴金蘭 二點 ▲金·氏 五點

祭基町町會 衣 二二六點 米 五合
朴好吉 二點▲李興昌 一點 曹仁源 一點▲朴奇男 一點 李范夏 二點▲朴學伊 一點 李基協 二點▲權世應 一點 吳甲九 六點▲延伯興 一點 梁桂台 二點▲閔丙玉 一點 李圭儀 四點▲徐佑忠 三點 浪承惠 五點▲金信奇 四點 鄭永讓 五點▲金用云 一點 李壽吉 一點▲李壽安 二點 金士俊 二點▲李廷禑 二點

金英春 四點▲朴英秀 三點 李奇男 三點▲李鍾九 六點 梁柱石 一點▲李元植 二點 任淑宰 二點▲金容浩 二點 張萬權 三點▲崔漢甲 四點 金點用 二點▲李啟甲 四點 朴炳燮 一點▲韓上天 一點 崔福成 二點▲李世永 一點 金榮殿 二點▲朴性鎬 一點 李在元 一點▲閔亨植 一點 李光文 五點▲金慶根 二點 金顯洙 二點▲李福石 二點 姜鍾永 五點▲李元鎬 二點 裴貞淑 一點▲江坂逆三 三點 李壽鎬 二點▲魯漢榮 二點 權重淑 一點▲魯鳳儀 二點 全春鶴 四點▲許壇 三點 李燦大 一點▲田中俊明 三點 李康海 四點▲朴聖化 三點 朴永吉 四點▲崔命煥 三點 金慶悅 三點▲孫龍相 一點 李亨培 一點▲李濟麟 一點 金弘均 六點▲元聖允 三點 金鳳圭 三點▲李禧元 四點 李寬基 一點▲金東鎬 五點 朴允明 六點▲兪鍚源 一點 林基忠 二點▲金應敎 一點 李基鎔 四點▲李鎔璣 五點 公州敎布敎所 七點▲金正謨 白米五合

神戶支局經由 衣 五○五點
朴基年 一六點▲嚴丁燮 七點 卓宗奎 一點▲李順点 六點 金鳳南 六點▲朴花仙 五點 裴錦桃 九點▲朴道昌 五點 陳谷善 六點▲金月仙 三點 朴蓮花 三點▲盧恩初 五點 李菊姬 三點▲吳允煥 四點 丁李洙 一點▲李文連 七點 權福德 一點▲姜粉仙 四點 無名氏 七點▲禹必用 五點 徐貞順 一點▲玄貞娘 六點 朴順錦 四點▲李佑洪 六○點 韓錦仙 七點▲辛月明 三點 涵雪梅 三點▲崔桂順 二點 車月仙 九點▲尹吉鳳 四點 大邱大新相護會婦人部 一六點 한복히 六點▲곽선성 五點 朴孫出妻 四點▲장재봉 三點 금순입 三點▲尹逢哲母 三點 金英애 二點▲박봉지 二點 금옥이 一點▲손달이 一點 노금수母 三點▲田在鳳妻 一點 최수덕母 一點▲李仁熙 一點 金仁祚 一點

大和親睦會

金重培 六點▲吳在守 一點 金奉植 二點▲李仁五 一點 金必圭 一點▲呂貞鉉 一點 金奉化 一點▲盧在達 三點 姜明孝 一點▲姜守富 一點 姜洛九 五點▲姜英祿 一點 李容善 一點▲李文述 六點 李太述 一點▲金碩伊 二點 辛致論 一點▲金德伊 一點 張東杓 一點▲朴先甲 一點 李昌根 九點▲朴興祚 一點 尹五奉 一點▲姜仁守 二點 李四圭 一點▲安碩坤 一點 堀田金五郎 三點▲具 一點 府爲石 二點▲韓昌煥 二點 車元洙 五點▲高龍學 一點 李鳴熙 二點▲周守子 一點 白文圭 一點▲李順今 一點 野上覺 四六點▲張來奉 六點 辛泳英 二○點▲金益善 二點 周武成 二點▲稻葉萬治 五點 鄭瑞浩 二點▲石東章雄 一六點 禹且謁 六點▲石田春商店 三點 尾上徑夫 九點▲鄭奉根 三點 金文德 五點▲金祥龍 一點 吉崎豊松 二點▲李米奉 一點 金彥守 二點▲權仁大 一點 金命權 五點▲安鍾鎬 四點 黃鳳昊 四點▲金聖順 一點 任昌順 米五合▲涵淳在 米一升 權寧洙 米五合▲韓鳳龍 米五合 金慶用 米五合▲尹吉鳳 米五合 丁相太 米五合▲許相萬 米五合 鄭止浩 米一升▲黃道明 米一升 韓順道 米三合▲金鳳振 米五合 鄭奉祚 米一升▲朴氏 米一升 河在容 米五合 (計白米一斗代金二圓七十錢換金)

水害義捐金
社會事業協會收合

▲一、○○○、○○ 京城府北米倉町 鮮滿拓殖株式會社▲八二、五六 同東崇町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職員▲七四、二○ 同大峴町梨花女子專門學校學生基督敎青年會會員(京日社扱)▲八○ 京畿道龍仁郡龍仁長老敎會(同)▲三七、五○ 岐阜縣土岐郡多治見町內鮮一心會有志▲三四、八五 釜山府朝鮮總督府獸疫血淸製造所職員▲六、八六 山梨縣東八代郡花鳥高等小學校職員生徒▲二三、三三 京城地方專賣局淸津出張所職員▲二五、○○ 淸津府浦項洞朝鮮日報社淸津支局內淸津記友會▲二、二八 咸鏡北道三峰稅關支署職員▲七、○六 京城地方專賣局北靑出張所職員▲一三、五七 福岡縣朝倉郡長老町在住朝鮮人一同(甘木警察署扱)▲一、三五 京城地方專賣局北靑出張所仲坪販賣所職員一同▲七四、六七 本府專賣局職員一同▲四八四、四六 福岡縣八幡警察署高等室會長八幡親和會師象武▲六七、七○ 京都府取締 ○、○○京都府在朝鮮人各團體▲三 京都府竹添町朝鮮金融組合聯合會▲一○○、○○ 同朝鮮金融組合聯合會矢鍋永三郎▲一五、○○ 同河野節夫▲一五、○○ 同本田秀夫▲一五、○○ 山根譲▲一五、○○ 同齋藤清治▲一一、四三 同職員一同

九月三十日現在累計 二○一、六○○、五一

乳用山羊
利用과飼養法
李相泰 ①

(傳染病患者及死亡者職業別 昭和七年度)

職業別	患者(男女合)人	死亡數人	患者에對한死亡率%	全人口에對한死亡率%	農業人口를除한人口에對한死亡率%
官公吏	三七七	八○	二一、二一	○、○○○四四	○、○○三一九
農業	七、○七六	一、三二九	一八、七五	○、○○六六八 (農業人口에對한死亡率)	○、○○八四一
商業	六○四	一四四	二三、八四	○、○○○七七	○、○○三七五
漁業	一四一	三三	二三、四○	○、○○○一六	○、○○○八○
鑛業	七九	二一	二六、五八	○、○○○一○	○、○○○二七
工業	一四五	二一	一四、四八	○、○○○一○	○、○○○二七
其他有職業	一三三	四一	三○、八三	○、○○○二一	○、○○○五四
無職	四八九	一一九	二四、三三	○、○○○六一	○、○○一五○
總計	一、一九六	二九○	二四、二五	○、○○○一五	○、○○三八六
平均	一、一三三	一六○	一四、二二	○、○○○二○	○、○○○三五

此表에依하면 傳染病에 對하야 農民이 第一抵抗力이 强하고 商業、無職、鑛夫가 弱하다 그러나 抵抗力이 强한 農民의 全人口에對한 死亡率이 第一高位를 示한것은 農民의數가全人口의 七九%를 占領하고 잇기때문이지만 이와가티 全人口의 七九%(昭和八年度)를 占領하고 잇스며 抵抗力이强한 農民의 死亡率이 만흔것은 全民族의 興亡에關한 問題다。

無味乾燥한 農村生活에 따뜻한 慰安機關과 榮養施設이 進展한다면 얼마나 미덤성잇는일이랴。

▲死亡年齡別(昭和七年度)

年齡	死亡(男女合)	全人口에對한百分率%	死亡總數에對한百分率%	指數
一歲未滿	五八、六二三人	○、二九三	一三、○七	四六五
一歲以上	六一、三一一	○、三○六	一三、六七	四八六
二歲以上	七七、一一一	○、三八五	一七、二一	六一二
五歲以上	三○、○一六	○、一五○	六、七二	二三九
十歲以上	一三、三○八	○、○六七	二、九八	一○六
十五歲以上	一二、六三四	○、○六三	二、八一	一○○
廿歲以上	一五、○一一	○、○七五	三、三八	一一九
廿五歲以上	一三、六六二	○、○六八	三、○四	一○八
卅歲以上	二八、五三六	○、一四三	六、三七	二二六
四十歲以上	四九、五八二	○、二四八	一一、○七	三九四
六十歲以上	七三、四六八	○、三六六	一六、三八	五八二
八十歲以上	一三、二○八	○、○六六	三、○六	一○九
年齡不明	一、三○○	○、○○六	○、二五	九
總計	四四八、五三○			

死亡年齡別에依하면 老齡에因한 自然死를 除外하면 二歲以上五歲까지가 最高位며 一歲以上二歲까지와 一歲未滿이 다음으로 만타 五歲以上부터는 漸次死亡數가 減少하여가나 十五歲로부터 廿五歲까지가 增加된은 靑春期인만큼 榮養關係와 肺結核等으로 死亡者가 늘어가는까닭이다。將次힘잇게나아갈 靑年의 死亡增加는 큰問題다。

右統計로 우리의 保健에 榮養을 度外視할수업슴을 明白히 알수잇다。卽 五歲以下의 幼兒의 死亡은 疾病에 因하겟지만 榮養不足 特히 人工 哺育의結果 榮養分缺陷의 影響도 만타고하겟다。

朝鮮의 耕地面積은 大正十二年에比하야 昭和七年末은 六萬九千五百七十八町五假이 增加하엿다。人口는 自然增加에依하야 大正十二年에 比하야 昭和七年까지의 十年間에 二百五十九萬三百六十人의 增加를보앗다。卽 人口의 自然增加와. 耕地面積의 增加는 一致하지안코 每人當의 耕地面積○、二四八町(大正十二年)이○、二一九町(昭和七年)으로 減少되엇스며 農家每戶에 大正十二年度의耕地面積一、六○五町이 昭和七年에는 一、五○五町으로 減少되엿다。그리고 農產物의殷富生產高도 米는 大略昭和五年을 中心으로別로·變動이업고雜穀도 多少의 變動뿐이다。以上을 綜合하면 耕地 面積은漸次 人口의 增加로 狹小하여지고地力의 衰退와資本의 缺乏等에 因하야, 收穫遞減의 法則에 依하야 生產力도 激增을 불수업스며 또 全人口의, 死亡率도昭和五年부터 增加되여가니 民衆保健과 衣食住에 對하야 關心을 가지지안흘수업다。우리는可及的이면 榮養에 立脚하야乳類其他生活의 向上을 爲하야 다가티 努力하며 共存共榮의 精神下에서 相互助力을 하여야할것이다。

數年以來로 民衆의 理解와專門家의 實證에 依하야 漸次乳用山羊等이 發展의途上에 잇스니 實로 欣快한 現象이다。

世界各國의 山羊飼養數를 드러보면 如左하다。

▲世界各國山羊統計

國名	調査年次	山羊飼養頭數	千人當頭數	一平方粁에對한頭數
丁抹	一九二九年	二四、五○○頭	七、三	○、五七
獨逸	一九二九	二、六五○、四○○	四一、五六	五、五八
佛蘭西	一九二八	一、三三二、三○○	三三、六六	二、四九
英吉利	一九二八	五一、四○○	一、一七	○、二二
伊太利	一九二八	三、一○○、○○○	八○、一○	一○、○○
瑞西	一九二六	二六九、三○○	六四、五六	六、五一
西班牙	一九三○	五、○六八、七○○	二二八、○四	一○、○一
加奈陀	一九二九	一○、九○○	一、一五	○、○○二
北米合衆國	一九三○	三、五一○、三○○	三三、八八	○、四三
印度	一九二六	三八、七○七、二○○	一二九、七○	八、七○
日本內地	一九二八	一三○、一○○	二、○○	○、三九
朝鮮	一九三三	二○七、三四三	一、○○	(一方里) 一、九一
불가리아	一九三○	一、三二八、六○○	二五八、○○	一三、○○

此에依하면 朝鮮의 山羊飼養은 增加하야가며 特히「자ー넨」種이 有望하고 「토겐부룩」種이 다음 간다。乳用山羊을 國土에 比하야 多數飼養하고잇는 國家는瑞西이다。瑞西는 國土全體에 山과 湖水가 大部分 占領하고잇스며 山도「알푸스」系統임으로到處에 山岳과 丘陵이 重疊하여잇고 山麓과 谷間에 多少平地가잇슴으로 普通農業은 不可能함으로 瑞西獨特한「아르펜農業」이 發達되엇다。瑞西는 高原地帶임으로 乾燥하고 寒氣가 甚하며 夏節이짤버서山谷間의牧草를 貯藏하야 두엇다가 冬節의 飼料에 充當하고잇다。海拔二千米以內의 高原은 山羊과 乳牛를 放牧하고잇다。

▲朝鮮內의山羊統計

年次	飼養戶數	擠乳頭數	總頭數 牝	總頭數 牡	總頭數 計	乳用자ー넨種 牝	乳用자ー넨種 牡	토겐부룩種 牝	토겐부룩種 牡	其他 牝	其他 牡	牝	牡
昭和五	[illegible]	一七七	一五、二二五	八、五五八	二三、八三三	八六六	一八三	二九	四	六六	一○	一四、二二四	八、三三一
六	[illegible]	八一	一七、三三九	八、三六二	二五、七○一	一、二六六	二六六	八一	八	一二九	三三	一五、八○三	七、九四五
七	[illegible]	二六九	一八、七○○	八、六六三	二七、三六三	一、七四八	三三○	一一五	一四	一二○	三○	一六、七二五	八、三○○
八	[illegible]	三四○	一九、二二九	九、四○三	二八、六五二	二、○六八	四四三	一一四	一三	一三○	一八	一六、九九六	八、九九九
九	[illegible]	三三二	二一、五○一	九、六八六	三一、一八七	二、○六五	四○四	一四○	二○	二九	五二	一八、九三三	九、一○○

黃昏 (194)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전후 (六)

「바루、당신이 내게 대해서생각하는바를 솔직히 말해주다면 그것은 나도 섭외것 두것소만……」

동필은 자기의 말이 다소간 탈선되것을 깨달으며 태도를고쳐 이러케 말하엿다

「만일 당신이 생각한거 업다고하면 그사이 날마에게서보고 들은거라도 말해주면 고맙겟듯지요。그리고 내의견도 말해드리지요。」

「그거야 동필씨 자신이 생각해보면누구보다도잘 알일이지요」

복술이도 동필의 태도가 고처지는데 따라서 감정을 억시하고 이러케 대답하엿다。

「나는 암만 생각해보아도 오늘까지 나자신에 부끄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가저본 일이라고는 업소。그러나 되지못한놈들이 공연히 죽더대는 모양이니그리기때문에 주직이놈부러만나보라는거요…하니까 주직이만 만나게 해주면 저간의 사정은 자연 명백해질겁니다」

「주직씨를 만나는건 물론 조흘줄 압니다만 내가 어떠케 만나게 하고 안만나게 할수잇겟습니까? 그러나 동필씨 성의만잇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잇겟지요……하여간 우리는 이러케생각할뿐입니다。동필씨고 준식씨고 본래부터 우의가 두터웟고……또 우리들도 두분의 지도로 여러가지 어든바가 만흔터인데 남을 인도할만한 중요한 자리에 잇는이들이 그러케 소닭 보듯해서야 어되 남들이 미들수 잇습니까?」

「그래、그게 내죄란 말이오?」

동필은 불연듯 다시 흥분되여갓다。

「굴세올시다……」

「남들이 아미더 줘도 무방하오、감어리설(甘言利說)로 남을 호려넘는 놈은 한편 반드시악담패설(惡談悖說)로 남을 모함하고 물리치는 법이오。그런악랄한 수단으로 남을 밋게하느니 차라리 잡자코 욕신으로서 남을 밋도록 하는게 정당하겟지요。그래도 남이 밋지안는다면 그야 제자신의 인격과노력이 부족한 탓이겟스니까그때는 자기의 몸을 더욱 편달하는수 박게……」

「그러니 그인격과 노력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겟습니까?우선 저자신부터……」

「그래、그걸 남에게만 강요하는 놈이 대체 어느놈 이란말요? 바루 당신놈의 맹장이란 자들이 그놈이아니오?」

그사이 혼자 차히고 차힌 울적한 분노가 얼시에 폭발되엇다。동필은 부지중 그자리를 차고 이러섯다。

「안즈서요……」

하고 복술은 발갓 우스며 다시 말을 이엇다ー

「그래도 우리는 동필씨를 밋고 시프니까 말이지오、그러니까 그러할이라도……」

「밋고 시퍼?……」

하고 동필은 한참 복술을 노려보다가 「엥히!」하고 뿌리치듯 홱쳐 나가버렷다。어듸가서든지 주직을 차자만나라는듯이 한 기세엿다。

쿵쿵하는 발소리가 문바게사라지자 복술이도 급히 집웅나섯다。

그는 길림이가 그려주든 지도를 머리에 그려보며 약속한 장소로 걸음을 빨리하엿다

동필이가 주고간 인상이 어드운 길을 것는 그의 머리에 새삼스레 선명히 떠와섯다。

동필은 뗄시 두사람의 녯날로 말을 이끌어가리라고 복술은 처음 생각하엿다。그러나 동필은 끗까지 그런 티는 내지안헛다。

그리고 녀자의압、더욱이 한때나마 젊은 심장에 새이고인든 녀자의아페 안즌 여남은 남자와가티 모든것을 잇고 오직 사랑에 취하랴는 그런 연약한 비츤 조금도 보이지안헛다。그것이 첫째 사내답게 생각되엇다。

동필은 회실히 상기를 하엿섯고 가끔 격노를 떠엿섯다。그래도 복술에게는 리해할수 잇는것이엇고、또 마땅한것이라고 생각되엇다。

웬만한남자가트면 남들이 그만츰 말성과、눈총을 주게되면 그만 꾸부러지든가 빗가고말것인데、동필은 심술사납다고 하리만치 백심이 조타。그것은절코 자기의 량심을 버리지안코라는데서 오는 힘인것가티도뵈엿다。

오늘밤의 동필은 한개의 녀자에게 추근추근히 하려는 죄최한 사람도 아니오、상대자에게 무조건으로 라협을 부치랴는 나약한 사람도 아니엇다。그는 어듸까지든지 자기의 의지를 살리랴는 구든 신념이잇고 자기에게、부듸처 오는장애물을 제손아귀로 다듬어주랴는 기풀이 잇는듯하엿다。

강한개성과 구든의지의 소유자인 동필의 얼굴에서는 결코 옛날의빗남이 사라지지안헛고、그말속에는 옛날의 그로 돌아가라는 눈물겨운 호소이 잇는것 가텃다。